

BDI

2006. 1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Scheme on Culture and
Art Promotion Policy in Busan*

임 호 · 강성권 · 주 덕

요 약

■ 연구개요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에 비해 문화산업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또한 문화예술정책, 문화시설정책, 문화산업정책의 영역 간에는 유기적인 연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 말미암아 정책의 통합성이 낮고 그에 따라 시너지 효과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화정책의 문제는 비단 부산시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지니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부산시가 문화도시로 발전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 부산이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집중도 중요하지만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서 문화산업 및 문화도시로서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와 함께 기초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그리고 이에 기반한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일차적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정책과 관련한 현황을 다각적으로 파악,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화도시 부산 실현의 토대로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국내외 동향을 감안한 정책방향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부산시의 각종 시책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평가는 문화예술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 이론적 자원

문화예술진흥정책이란 문화예술에 포함되는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창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관련정책, 예컨대 시민의 문화향수권 실현기회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회의 제공, 활동공간의 확충, 문화예술 종사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분석단위를 크게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 문화예술 향수권 지원정책,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추진체제로 나누는 한편 그 내용적 범주에 있어서는 재정,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발전이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예술의 진흥은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다차원적인 공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화예술 발전이 도시발전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차적인 측면을 형성하는 것은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도시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서의 가능성(경제적 가치)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의 측면은 문화예술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이다. 문화예술의 향유과정은 문화적 규범을 보급하고 지역정체성을 공유하게 함으로서 사회안정과 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창조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통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지식기반경제시대, 세계화에 따른 지역간 경쟁의 심화는 지역의 창조력(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역량의 강화가 도시발전을 이끄는 핵심적 토대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단순히 사회적 가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문화예술진흥의 당위성은 예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향유과정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서의 예술의 문화적 힘과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효과 및 가치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하나의 사유방식이라고 할 때, 예술의 향유는 개인의 창의성을 신장하는 것이며 예술의 진흥은 도시의 창의성을 높여 도시발전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예술진흥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 결론 및 정책제언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해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시민과 전문가들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관련연구와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향수권 제고, 문화예술정책 추진기반 측면에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지원정책의 방향 정립,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활성화, 비예산지원방안의 개발, 공공예술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문화향수권 제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종합적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개최 확대 및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문화예술정책 추진기반 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조직 및 추진체계의 개선, 예산 및 재정기반 개선, 문화시설의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위원회 설치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문예진흥예산의 확대, 지원예산의 운영 합리화, 민간 재원의 적극 개발을 통해 예산 및 재정기반을 개선하며, 소규모 생활근접형 시설 확충, 장르별 전문시설 설치, 문화시설 운영의 민간화를 통한 문화시설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정책, 좁게는 문화예술진흥정책이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욕구와 부합하지 못하는 제한된 점들이 있음이 사실이다. 특히 그간 부산시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보다는 문화산업영역에 보다 강한 정책의지를 지녀오면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구사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문화예술의 발전이 없이는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은 토대가 약한 상태에서 문화컨텐츠가 개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는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이의 발전이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화예술정책의 환경이 변화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개선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제시한 각

중 개선방안의 경우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은 여러 가지로 구축될 수 있겠지만 민간화, 수요자 중심, 예술경영적 관점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산시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개선을 추구한다면 그 출발점은 (가칭) 부산문화재단 혹은 (가칭)부산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제시한 각종 정책개선방안의 수용, 기존 부산시의 관련정책의 성과 제고,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구축 및 실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조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3
II. 이론적 검토	4
1. 문화예술진흥정책이란 무엇인가?	4
2. 왜 문화예술진흥정책인가?	6
III.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현황	9
1. 부산시 문화정책의 개요	9
2.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현황	9
3. 부산시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	20
IV.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평가	30
1. 문화예술정책 일반사항에 대한 평가	30
2.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32
3. 문화예술 향수권 제고 정책에 대한 평가	38
4. 문화예술진흥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41
V.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 개선방안	47
1.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방향	47
2.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개선방안	52

VI. 결론 및 정책제언	65
◆ 참고문헌	67
◆ 부 록	68

표목차

<표 III-1> 시립교향악단 공연활동 현황	11
<표 III-2> 문화예술활동 시비지원 현황	11
<표 III-3>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지원 현황	12
<표 III-4>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현황	13
<표 III-5>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지원 현황	15
<표 III-6>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18
<표 III-7>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예산	19
<표 III-8>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최근 6개월)	21
<표 III-9> 참여희망 문화예술행사	22
<표 III-10> 부산지역축제 참여 경험	23
<표 III-11> 문화예술행사 참여 선택기준	24
<표 III-12> 문화예술행사 참여 제약요인	25
<표 III-13> 문화예술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26
<표 III-14>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참여 여부	27
<표 III-15> 문화동호회 참여분야	27
<표 III-16> 문화관련 동호회 불참 이유	28
<표 III-17> 문화예술교육 참석 의향	28
<표 III-18> 문화예술교육 참여희망 장르	29
<표 IV-1>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31
<표 IV-2> 부산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	32
<표 IV-3> 문화예술활동 여건 평가	33
<표 IV-4>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평가	33
<표 IV-5> 문화예술행사 양적 평가	33
<표 IV-6> 문화예술행사 수준 평가	34
<표 IV-7> 지역문화예산 우선 지원사업	35

<표 IV-8> 부산문예진흥기금 운용 평가(5점 척도)	36
<표 IV-9> 부산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견	36
<표 IV-10> 시민 문화예술 행사 참여기회 평가(일반시민)	38
<표 IV-11> 부산지역 문화예술행사 수준평가(일반시민)	39
<표 IV-12> 부산시의 문화예술행사 홍보 평가(일반시민)	39
<표 IV-13> 민간 문화예술전문인들의 의견 반영도	41
<표 IV-14>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영향력 평가	42
<표 IV-15> 부산 문화시설 충분성 평가	43
<표 IV-16> 부산 문화시설수준 평가	44
<표 IV-17> 문화시설 활용도 평가	44
<표 IV-18> 문화시설 이용시의 문제점	46
<표 V-1> 세계도시의 문화전략	48
<표 V-2> 역점 문화 정책	49
<표 V-3> 문화정책과제 우선순위	50
<표 V-4>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재원 확충 방안	58
<표 V-5> 문예진흥기금 지원 방향	59
<표 V-6> 문화시설 확충방안	60
<표 V-7> 문화시설확충 순위	61
<표 V-8> 문화시설 동향	61
<표 V-9>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63

그림목차

<그림 III-1>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최근 6개월)	21
<그림 III-2> 참여희망 문화예술행사(다중응답 분석)	22
<그림 III-3> 문화예술행사 참여 선택기준(5점 척도)	24
<그림 IV-1>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5점 척도)	31
<그림 IV-2> 지역문화예산 우선 지원사업(다중응답)	35
<그림 IV-3> 문화예술행사 홍보·양적·질적 평가(일반시민)	40
<그림 IV-4> 문화시설 이용시의 문제점(다중응답)	45
<그림 V-1> 문화정책과제 우선순위(다중응답)	50
<그림 V-2> 도시의 예술진흥정책 개입영역	51
<그림 V-3> 확충 희망 문화시설(다중응답)	60
<그림 V-4>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다중응답)	63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한 도시의 문화적 수준은 도시경쟁력의 핵심적 요소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창의성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내외의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경제적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제의 확대, 삶의 가치에 대한 변화 등에 따라 문화예술분야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시의 경우에도 영화·영상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역시, 실제적인 내용과 수준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전체 부산시의 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결코 낮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문화정책은 내적 불균형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 정책분야간의 상호연계성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 예컨대,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에 비해 문화산업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또한 문화예술정책, 문화시설정책, 문화산업정책의 영역간에는 유기적인 연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 말미암아 정책의 통합성이 낮고 그에 따라 시너지효과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화정책의 문제는 비단 부산시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1)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과 함께 전국의 대다수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지니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임학순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예술과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적 삶과 문화산업 모두를 아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예술분야에서는 예술의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인력의 수급체계가 매우 불안정하다. 또한 지역간 문화격차가 매우 크며, 지역의 문화예술현장에서는 문화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이 취약하다. 한편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과 아울러 문화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체계는 없고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과 경영능력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²⁾

이 같은 현실은 부산시가 문화도시로 발전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 부산이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집중도 중요하지만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서 문화산업 및 문화도시로서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³⁾ 아울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은 정책범위의 확대,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운용체계의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와 정책개선이 요구되어진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산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와 함께 기초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그리고 이에 기반한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일차적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정책과 관련한 현황을 다각적으로 파악, 분석하고자

2) 임학순(2006, 65)

3)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결과 부산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29.3%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답하였고, 다음으로 기초문화예술 육성 23.1%, 문화산업 전문인력 육성 16.2%, 문화산업 전담기구의 설립 15.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다. 아울러 문화도시 부산 실현의 토대로서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국내외 동향을 감안한 정책방향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부산시의 각종 시책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평가는 문화예술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설문조사와 함께 영역별 전문가와 함께 현황에 대한 진단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⁴⁾ 일반시민들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문화향수와 관련된 의견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는 2006년 8월 현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예술대학교수, 부산광역시청 및 구·군청, 시립문화시설에 근무하는 문화행정 공무원, 부산예총 및 민예총 회원, 그리고 시립예술단원을 포함하는 총 4,000여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이들 모집단을 대상으로 각 장르별 모집단 크기에 따라 선정한 770명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우편조사의 결과 231명으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일반시민 대상의 설문조사는 2006년 8월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20세에서 69세사이의 주민등록인구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성별, 연령별, 구·군별로 할당하는 비례층화표집을 하여 500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8월 7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초한 개별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다.

4) 전문가 간담회는 2006년 5월 12일 부산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참가한 전문가는 안원현(신라대 교수), 구모룡(한국해양대 교수), 김동석(부산연극협회장), 정승찬(부산민예총 사무처장), 이갑상(부산 아트갤러리 대표), 전중근(문화도시부산 네트워크 사무국장)이며, 공동연구자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II. 이론적 검토

1. 문화예술진흥정책이란 무엇인가?

문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듯이 문화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정책연구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초가 되는 관련법의 정의를 일차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볼 때 문화예술진흥정책이란 문화예술에 포함되는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창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관련정책, 예컨대 시민의 문화향수권 실현기회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회의 제공, 활동공간의 확충, 문화예술 종사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을 포함한다.

박신익은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단위를 크게 창작환경의 여건 및 기반 조성, 문화예술 향수 지원정책, 그리고 예술의 창의성에 근거한 문화산업 발전기반 구축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창작환경의 여건 및 기반 조성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의 조성 차원에서 예술가의 지위와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 연습실 및 작업실 지원정책 등 각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다. 문화예술 관련 시설은 문화향수의 거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 향수정책의 중요한 한 측면을 구성한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창작과 향유의 흐름을 이어주는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향유자에게는 문화적 역량을 확대하고 창의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며, 예술가로서는 창작활동의 연장으로서 교육활동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사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창작활동 활성화의 지점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로 사회가 가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토대로 문화사회의 기반이 조성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한 예술의 사회화 역시 문화예술 향수권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

마지막으로 예술의 창의성에 근거한 문화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예술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산업의 목표는 예술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매개-향유되는 문화예술의 발전관계 속에서 이 구조를 합리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예술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연관성을 갖는다. 예술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은 곧 지속적으로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콘텐츠를 통한 산업화, 또 그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라도삼의 경우 서울시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연구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내용을 창작환경의 제공,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의 확대, 예술의 공공적 활용, 그리고 서울의 문화성 창조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다소 폭넓게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의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창작환경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후원, 창작환경 지원,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 컨설팅과 정보의 제공, 후원의 촉진, 예술작품 구매자로서의 서울시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각종 할인제도의 개발, 홍보와 마케팅, 순회관람 서비스, 주5일 프로그램을, 예술의 공공적 활용에 있어서는 도시미관프로젝트, 지역 예술프로그램의 제공이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내용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조사와 연구, 특성과 정체에 대한 지원, 장소와 공간의 개발, 문화거버넌스의 형성 등을 통한 서울의 문화성 창출 역시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프로그램으로 이해되고 있다.⁶⁾

이상에서 보듯이 논의의 관점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내용적 범위의 설정

5) 박신의(2006, 144-156)

6) 라도삼·이호영(2003, 142)

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의 제고는 공히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내용으로 포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이 어떤 체계 하에서 수립되고 집행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달리 문화예술진흥정책은 그 수단적 의미에서의 재정과 시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창작활동 지원이든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든 재정의 수반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 역시 창작활동이나 문화예술 향수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분석단위를 크게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 문화예술 향수권 지원정책,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추진체제로 나누는 한편 그 내용적 범주에 있어서는 재정,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왜 문화예술진흥정책인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히 창작활동을 하거나 향수하는 개인이 갖는 개별적 가치를 중요시한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발전이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예술의 진흥은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다차원적인 공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화예술 발전이 도시발전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차적인 측면을 형성하는 것은 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도시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서의 가능성(경제적 가치)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의 측면은 문화예술이 지니는 사

회적 가치의 측면이다. 문화예술의 향유과정은 문화적 규범을 보급하고 지역정체성을 공유하게 함으로서 사회안정과 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창조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통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지식기반경제시대, 세계화에 따른 지역간 경쟁의 심화는 지역의 창조력(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역량의 강화가 도시발전을 이끄는 핵심적 토대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단순히 사회적 가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⁷⁾

다른 한편 문화예술진흥의 당위성은 예술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향유과정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서의 예술의 문화적 힘과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효과 및 가치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하나의 사유방식이라고 할 때, 예술의 향유는 개인의 창의성을 신장하는 것이며 예술의 진흥은 도시의 창의성을 높여 도시발전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예술진흥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끝으로 보편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창의성’을 발현하는 근본기제로서 인간의 창의성을 근간으로 휴머니즘과 자율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 예술창작물은 다양한 매개장치를 통해 사회화되고, 이 과정 속에서 대중은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곧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연결된다.⁸⁾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공공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각 국가 혹은 각 도시들은 보다 강화되고 확장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여러 문헌을 통하여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이 최근에는 어떤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임학순은 세계 문화정책의 최근 동향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의 강화이다. 문화정책의 영역이 전통문화, 예술진흥, 문화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산업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7) 문화, 창의성, 창조도시, 지역발전간의 연관에 관한 논의로는 임상오(2006), Landry(2005)를 참조할 수 있다.

8) 박신의(2006, 143)

둘째, 창의성과 문화예술교육정책 강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예술가들의 활동영역을 학교교육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예술을 배우고 상상력을 시험하고 잠재적인 창의력을 계발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방침하에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2005년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국가역할을 증대하고 지자체 등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전략 개발, 문화예술 교육인력에 대한 훈련 강화, 문화관련 기관 활용 제고, 그리고 사회의 새로운 구도에 대한 이해의 제고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예술가 및 문화예술 인력정책의 강화이다. 영국의 경우는 1990년대 말부터 예술가 개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는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외에도 예술가의 생활, 사회보험, 노동시장 등 예술가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 확대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보듯이 지방정부의 문화지출 분담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문화정책도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지방분권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서부터 점차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는 데로 정책 초점이 변화되고 있다.⁹⁾

이러한 흐름에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맥락에서 주목되는 점은 창의성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강화, 예술가 및 문화예술 인력 정책의 강화,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참여 증진 추구라는 점이다.

9) 임학순(2006, 69-74)

Ⅲ.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현황

1. 부산시 문화정책의 개요

현재 부산시의 문화정책 방향은 문화의 대중화,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세계화라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문화의 대중화는 문화 인프라의 확충, 시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개발 확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서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다. 문화의 산업화는 영화·영상산업의 육성,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문화축제행사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주된 시책으로 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세계화는 국제수준의 문화행사 개최, 국내외 문화예술공연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부산시의 문화정책체계는 부산시 문화예술과의 조직체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즉, 부산시 문화예술과는 문화정책, 예술진흥, 문화산업, 영화영상진흥, 문화재의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는 바, 이들 조직은 부산시 문화정책의 기본골격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2.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현황

부산시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이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간략히 정리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내용적 범위를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 문화예술 향수 지원

10) 이들 각 조직이 수행하는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이는 부산시 문화정책의 내용적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 그리고 문화예술관련 시설, 재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문화예술정책 추진체계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자 한다.

이들 세 측면에서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민들의 문화향수 실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

(1) 창작활동 기회 제공

기초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시는 각 장르별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거나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무용콩쿠르, 부산음악콩쿠르, 부산미술대전, 부산국악대전, 부산건축대전, 부산연극제, 부산무용제이다. 이 가운데 부산미술대전의 경우 올해로써 32회에 이르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부산건축대전과 부산무용제를 제외하고는 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부산무용제와 부산연극제의 경우 최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해변무용제, 부산국제연극제와 같이 축제의 형식으로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시립예술단의 운영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립예술단의 활동수준은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이해될 정도이다. 부산시는 예술단 산하에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의 6개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각 예술단체는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을 두고 있으며¹¹⁾,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1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술단장(부시장)은 각 예술단체의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 수석연출자가 예술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시립교향악단은 1962년 창단되어 현재 수석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 악장을 포함한 악단원 86명으로 되어 있다. 최근 공연실적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연간 40여회에 걸쳐 각종 공연을 펼치고 있다.

〈표 III-1〉 시립교향악단 공연활동 현황

연도	계	정기공연	특별공연	순회공연	기획공연	행사공연
2003	47	10	22	6	3	6
2004	34	10	14	3	3	4
2005	42	10	24	3	3	2

(2) 창작활동 재정지원 사업

시민문화 수혜혜택이 많은 예술행사에 대하여 공모전, 경연대회 등과 같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규모는 점차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분야별로 지원규모의 차이는 보이고 있다. 이는 작품의 제작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2〉 문화예술활동 시비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종합 (예총)	건축	음악	미술	문학	국악	무용	사진	연극	축매	기타
2003	건수	23	3	1	3	3	4	1	3	1	2	1	1
	지원액	562	186	4	64	35	70	18	65	20	45	25	30
2004	건수	30	5	1	3	3	8	1	3	1	3	1	1
	지원액	931	310	4	64	30	235	18	65	20	130	25	30
2005	건수	33	4	1	3	3	8	1	4	1	3	1	4
	지원액	1407	255	4	64	41	245	18	165	20	190	25	380

자료 : 부산광역시(2005a)

막대한 제작경비가 소요되는 반면 수익성이 적어 민간차원에서 창작활성화를 기하기 어려운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무대공연작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예산은 국비와 시비 각 50%씩으로 매년 조성되며, 국비에 대한 대응자금형식으로 시비가 확보된다. 이는 무대공연 제작 지원사업으로 창작품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개별작품에 대한 지원규모가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낮음으로 인해 작품수준의 향상에는 제약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표 Ⅲ-3〉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국악	무용	연극	음악
2003	건수	91	15	26	27	23
	지원액	800	130	233	238	199
2004	건수	93	17	21	32	23
	지원액	779	138	207	227	207
2005	건수	64	11	15	17	21
	지원액	400	69	104	118	109

자료 : 부산광역시(2005a),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1999년부터 중앙문예진흥기금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별도로 창작활동 지원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적립기금, 운용기금, 공공미술기금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기금의 조성방법으로는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및 기탁금, 미술장식품 예치금 및 그 이자수익금 등이다. 한편 기금의 용도는 관계법령상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문화시설물의 조

성 및 개·보수,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다.

부산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규모는 2005년 10월말 현재 9,483백만원이며, 2005년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규모는 286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900백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III-4〉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음악	미술	문학	전통	무용	연극·영화	축매	시책
2003	건수	284	51	58	73	3	26	32	17	6
	지원액	750	103	128	115	35	96	113	36	80
2004	건수	304	49	73	59	3	28	34	28	7
	지원액	830	114	142	127	30	106	125	40	89
2005	건수	286	43	68	65	28	18	41	23	8
	지원액	900	153	154	137	104	144	165	43	100

자료 : 부산광역시(2005a),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예산범위내 경비보조 및 공연·전시시설 우선사용 등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단체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술단체의 활동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창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의미를 지닌다.

지정대상은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극단, 뮤지컬단, 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창극단, 국악단, 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그리고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해져 있다. 지정절차는 신청에 의거 실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지정되며¹²⁾,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이 허용되고,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다. 또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¹³⁾

2) 문화예술 향수권 제고 정책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은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문화접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창작활동 지원사업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2003년까지 중앙정부에서 시행되던 사업으로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재원은 교부세(국비), 시비 각 8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수혜대상으로는 문화소외지역의 주민,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계층과 내·외국인 근로자 및 교정시설 재소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소재 민간문화예술단체이며, 지원장르는 음악, 무용, 연극 등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행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업지원대상의 선정은 공모 후 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10-20명 정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12) 심의기준은 예술활동의 우수성, 인력과 시설의 전문성, 재정능력의 충실성, 문화예술진흥에의 기여도 등이다.

13) 현재 부산시에는 6개 법인, 1개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사)신세기교향악단, (사)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의 법인과 한울림합창단이다.

이 사업의 경우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 기회제공, 사회봉사를 통한 자긍심 고취의 계기 마련이라는 성과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연소요경비에 비해 지원규모가 적은 점, 공연장소의 확보 및 음향, 조명 등 시설의 미비에 따른 공연 애로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표 III-5〉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지원 현황

(단위 : 개, 회, 백만원, 명)

구분		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기타
2004	단체	51	21	11	2	14	3
	회수	216	68	34	4	96	14
	예산	160	56	33	48	11	12
	관람인원	72,984	16,204	6,750	2,700	44,450	2,880
2005	단체	46	21	9	3	9	4
	회수	161	52	28	6	57	18
	예산	160	57	32	14	37	20
	관람인원	31,720	12,141	4,370	1,650	6,109	7,450

자료 : 부산광역시(2005a),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무대공연예술 관람객으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사업이 사랑티켓제도¹⁴⁾가 있다. 사랑티켓은 순수무대공연예술(연극, 국악, 무용, 오페라, 창극, 연주회, 뮤지컬)의 관람료 일부를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시가 지원하여 관람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 무대공연예술 종합관람권이다. 이 제도는 관객의 공연예술 향수기회를 증대하고 공연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로써 공연 애호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연예술단체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부산시의 경우 2006년도 총사업비 3억원(중앙기금 2억4천만원, 시비 6천만원)

14) 이 제도는 1991년 한시적으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던 것이 2001년부터 지역사랑티켓으로 전국화되었으며, 2006년 현재 전국 12개 광역시도와 3개 기초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으로 56,600매의 사랑티켓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랑티켓 1매당 5천원을 보조하고 있다. 2005년도의 사업실적을 보면, 보조금은 2억4천만원(중앙기금 1억 8천만원, 시비 6천만원)으로 판매된 티켓은 48,000매였다.

3)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추진체계

(1) 조직

부산시의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국 내의 문화예술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정책, 예술진흥, 문화산업, 영화영상진흥, 문화재 5담당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시의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문화예술진흥정책과 관련한 핵심적인 기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부산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 문화상 수여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부산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와 함께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부산시 산하에는 문화회관과 시립미술관의 2개 사업소가 있다.¹⁵⁾ 문화회관은 문화예술 발표공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전시공간,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작품 감상공간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공공 및 공익행사의 편의제공,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시립미술관은 전시실 운영과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대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가운데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는 지역의 문화예술 정체성 형성 및 창작활동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장품의 구입은 소장품구입계획에 의거하여 작품추천위원회의 심의, 작품구입위원회의 최종심의

15) 문화관광국 산하에는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충렬사관리사무소, 시립미술관의 4개 사업소가 있다. 이중 시립박물관과 충렬사관리사업소의 사업내용은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포함시키기에 다소의 내용적 무리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¹⁶⁾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공모 → 심의 → 사업수행 및 관리 → 사후평가의 절차를 진행하는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공연예술, 전시예술, 기타분야의 세 분야에서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10~20명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정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업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보조금의 지급은 공연종료후 정산서류 제출과 함께 신청 및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평가에 있어서는 장르별 주요공연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중 수시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경우 모집공고는 문화관광부에서 일괄공고를 하며, 부산시의 경우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고 있다. 지원대상사업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¹⁷⁾, 심사위원의 평가점수에 의한 본심사¹⁸⁾ 및 인터뷰심사를 통하여 선정되고 있다. 제작작품에 대한 사후평가는 분야별로 6~8명의 전문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행정평가와 작품성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행정평가의 경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관객유치 수준,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가 실시된다. 작품성평가는 작품당 2명의 전문평가위원이 공연 관람후 작품성에 대한 평가서 작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규모가 결정된다. 심의위원은 부산시 소재 대학, 예총 및 민예총 산하 예술단체, 언론사, 그리고 부산시 문예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문성, 지원신청자와의 관련여부, 추천기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분야별 예산, 장르별 특성, 신청현황 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며, 신청자의 전문성 및 성격, 사업내용, 사업규모, 전년도

16) 기중의 경우에도 작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지역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 작품 및 지원단체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예비심사라고도 한다.

18) 심사위원의 개별평가심사의 기준은 신청자(공연단체 및 기획사)의 사업수행능력과 활동실적,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작품 혹은 프로그램의 작품성과 예술성, 그리고 발전성, 출연진 및 스태프의 전문성과 기량, 그리고 홍보계획 등 5개분야 10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행평가,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정한다. 지원금은 사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산서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를 하고 있다.

(2) 예산

2006년도 당초예산 기준 문화관광국의 총예산은 85,978,464천원이며, 이 가운데 문화예술진흥과 연관성이 높은 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 43,943,678천원, 문화회관 15,899,543천원, 시립미술관 4,086,228천원이다. 문화예술과 예산 가운데 사업비는 총예산의 83.0%인 36,477,328천원이며, 문화회관은 19.8%인 3,146,332천원, 시립미술관은 24.1%인 983,734천원이다.

문화예술과의 사업비는 문화관광국 사업비 50,348,121천원 가운데 72.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상중심도시 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2,688,272천원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지원 및 시민참여 확대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9,591,213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한 부산의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3%로 서울이나 대구, 인천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대전, 울산에 비해서는 문화예산의 비율, 1인당 문화예산이 적음을 알 수 있다(<표 III-6> 참조).

〈표 III-6〉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단위 : 개, 천원, %, 원)

구분	지자체수	전체예산 ¹⁹⁾	문화예산 ²⁰⁾	문화예산 평균	문화예산 비율(%)	1인당 문화예산(원)
전체	250	119,503,040,000	3,612,910,477	14,451,642	3.02	73,653
서울	26	20,215,265,000	260,798,849	10,030,725	1.29	25,350
부산	17	6,582,425,000	133,728,537	7,866,385	2.03	36,298
대구	9	4,325,258,000	81,558,598	9,062,066	1.89	32,113
인천	11	4,793,535,000	72,817,414	6,619,765	1.52	27,892
광주	6	2,701,023,000	63,529,468	10,588,245	2.35	45,155
대전	6	2,443,148,000	76,579,884	12,763,314	3.13	52,786
울산	6	2,042,086,000	48,887,987	8,147,998	2.39	44,936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재구성(조사기준년도는 2004년)

한편, 문화예산 가운데 문화예술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산이 39.5%로 서울, 대구, 광주 등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표 III-7> 참조). 이는 문화예산이 일반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낮지 않은데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배분이 매우 낮아 기초문화예술육성이 소홀히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I-7〉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예산

(단위 : 개, 천원, %, 원)

구분		지자체수	전체예산	문화예술예산	문화예술예산평균	문화예술예산비율	문화예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비율
전체		250	119,503,040,000	1,544,791,461	6,179,166	1.3	42.8
지역	서울	26	20,215,265,000	228,927,380	8,804,899	1.1	87.8
	부산	17	6,582,425,000	52,759,564	3,103,504	0.8	39.5
	대구	9	4,325,258,000	66,458,086	7,384,232	1.5	81.5
	인천	11	4,793,535,000	34,137,223	3,103,384	0.7	46.9
	광주	6	2,701,023,000	56,452,988	9,408,831	2.1	88.9
	대전	6	2,443,148,000	44,586,439	7,431,073	1.8	58.2
	울산	6	2,042,086,000	17,795,168	2,965,861	0.9	36.4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재구성(조사기준년도는 2004년)

(3) 시설

부산광역시의 공연시설로는 공연장 30개소, 영화상영관 23개소 등 총 53개소가 있다. 공연장의 경우 공공공연장 13개소, 민간공연장 17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1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총액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2004년 12월 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20) 문화예산은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진흥, 문화재보존 분야의 예산을 의미하며, 체육예산은 제외하였다.

공공공연장은 문화회관, 시민회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민주공원, 구민생활관의 대소 공연장으로 중부산권과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다.²¹⁾

이들 공연시설의 경우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민회관과 부마항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민주공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시 또는 구청에 의해 직영되고 있다.

전시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으로 구분되는 데 부산광역시에는 박물관 15관, 미술관 3관, 화랑 48개, 조각공원 8개로 총 72개의 전시시설이 있다.²²⁾ 이 가운데 공립시설로는 박물관의 경우 시립박물관, 복천박물관, 해양자연사박물관 등 6개소이며, 미술관의 경우 시립미술관 1개소이다.

3. 부산시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²³⁾

부산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실태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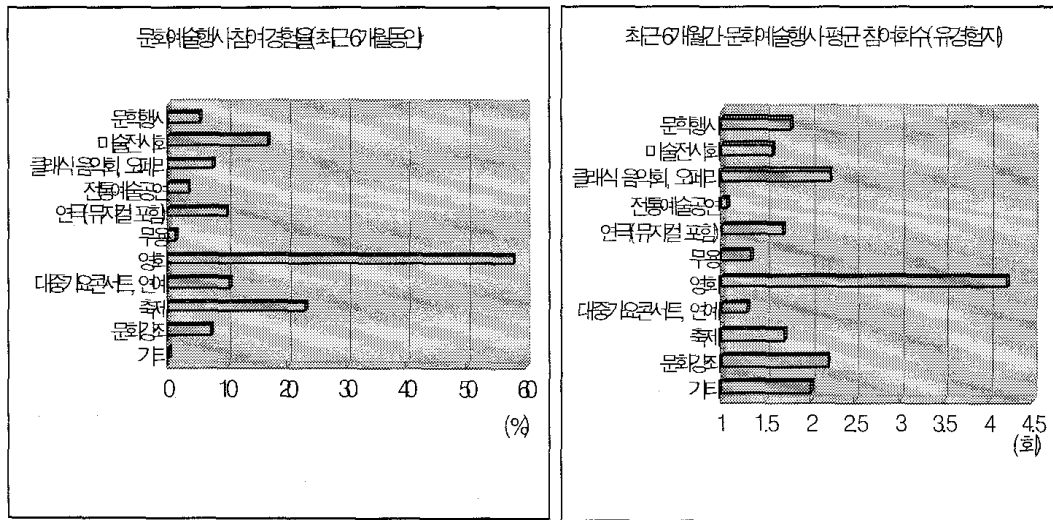
1) 문화예술행사 참여 실태

조사시점으로부터 ‘최근 6개월 동안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1회 이상의 참여 여부’를 물어본 결과,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화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57.8%의 참여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축제 23%, 미술전시회 16.8%, 대중가요콘서트·연예 10.4%의 순위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무용은 1.2%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부산광역시(2005b)

22) 문화관광부(2006)

23) 부산시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임. 자세한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제1장의 연구방법 및 부록 설문지를 참조 바란다.



〈그림 III-1〉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최근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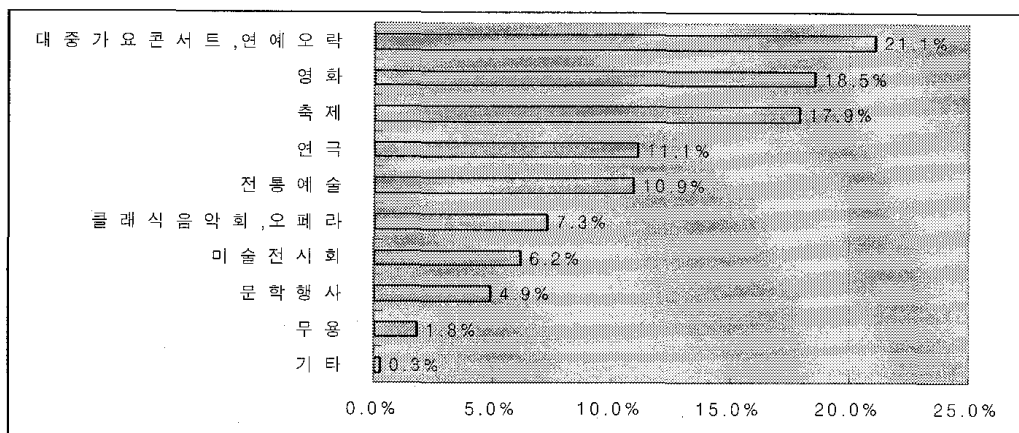
〈표 III-8〉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최근 6개월)

항목	참여 경험 유무*	<%>	전체 응답자 대상		유경험자 대상	
			평균 참여회수	표준편차	평균 참여회수	표준편차
문화행사	27	5.4	0.10	0.57	1.78	1.78
미술전시회	84	16.8	0.26	0.72	1.57	1.00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37	7.4	0.16	1.11	2.22	3.54
전통예술공연(국악, 마당극 등)	17	3.4	0.04	0.20	1.06	0.24
연극(뮤지컬 포함)	49	9.8	0.17	0.60	1.69	1.02
무용	6	1.2	0.02	0.17	1.33	0.82
영화	289	57.8	2.43	3.52	4.20	3.74
대중가요콘서트, 연예	52	10.4	0.13	0.43	1.29	0.54
축제	115	23	0.39	1.04	1.71	1.55
문화강좌	36	7.2	0.16	1.02	2.19	3.21
기타	1	0.2	0.00	0.09	2.00	

* 참여경험자 수는 조사대상자 500명 가운데 각 항목에 대한 참여 경험자 수를 파악한 것임

아울러 부산시민이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 1순위로는 영화가 응답자의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중가요콘서트·연예오락

17.2%, 축제 13.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순위와 3순위는 대중가요콘서트·연예오락(21.1%), 영화(18.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는 대중가요콘서트·연예오락(21.1%), 영화(18.5%), 축제(17.9%) 순으로 고급예술보다는 주로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III-9> 참조). 이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가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장르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어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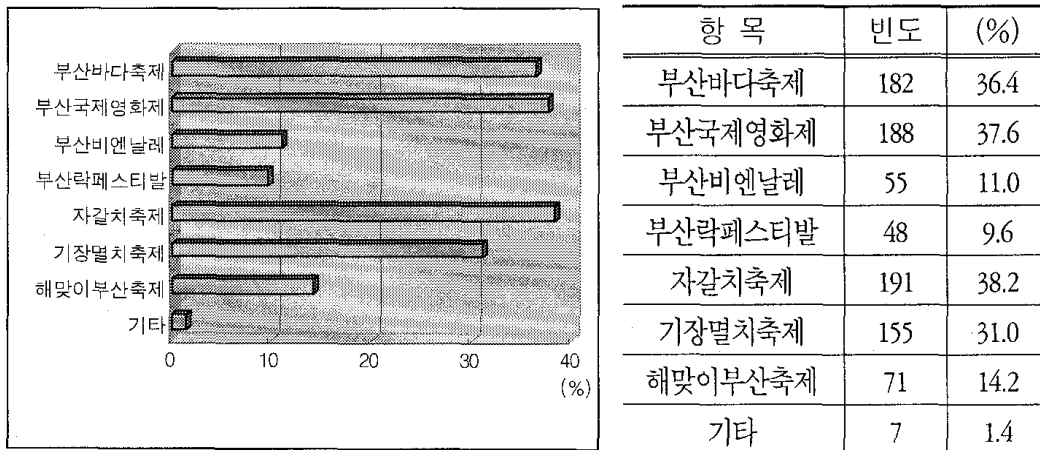
〈그림 III-2〉 참여희망 문화예술행사(다중응답 분석)

〈표 III-9〉 참여희망 문화예술행사

항목 \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중복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문학행사	25	5.0	17	3.4	30	6.4	72	4.9
미술전시회	41	8.2	26	5.2	24	5.2	91	6.2
클래식음악회/오페라	42	8.4	38	7.7	26	5.6	106	7.3
전통예술	48	9.6	57	11.5	54	11.6	159	10.9
연극	46	9.2	72	14.5	44	9.4	162	11.1
무용	6	1.2	12	2.4	9	1.9	27	1.8
영화	138	27.6	63	12.7	69	14.8	270	18.5
대중가요콘서트/연예오락	86	17.2	115	23.2	108	23.2	309	21.1
축제	68	13.6	96	19.4	98	21.0	262	17.9
기타	0	0	0	0	4	0.9	4	0.3
합 계	500	100.0	496	100.0	466	100.0	1,462	100.0
무응답	0	0	4	0.8	34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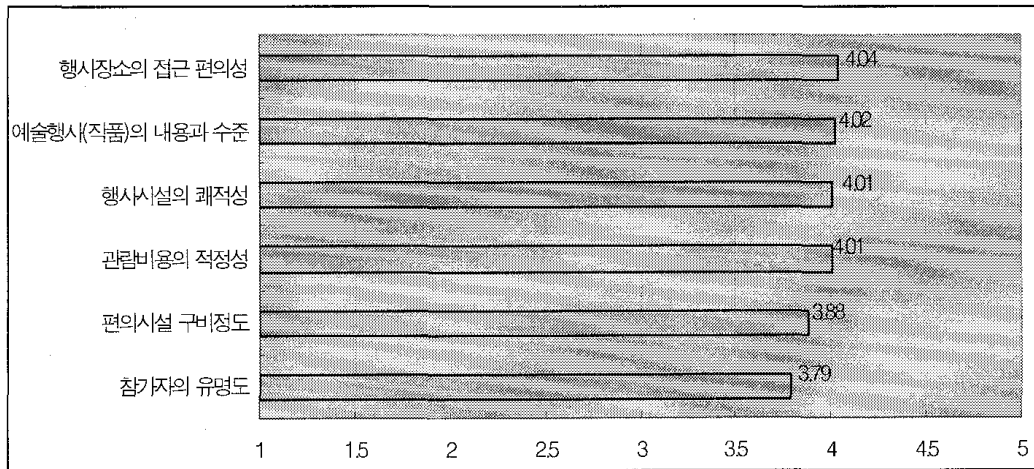
지역에서 다양하게 개최되는 축제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기에 쉬운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²⁴⁾ 부산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축제별로 그 참여경험을 보면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이 가장 높은 축제는 자갈치축제 38.2%, 부산국제영화제 37.6%, 부산바다축제 36.4%, 기장멸치축제 3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부산지역축제 참여 경험



한편,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기준은 무엇인가’를 알아 본 결과, 평가점수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행사장소의 접근 편의성’이 4.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술행사(작품)의 내용과 수준’ 4.02점, ‘관람비용의 적정성’과 ‘행사시설의 쾌적성’이 각각 4.01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 및 <표 III-11> 참조).

24) 지역축제는 제의와 연희로 이루어지는 놀이의 장으로서 사회의 결속력 강화, 자아정체성의 확인 등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특정장르의 예술축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대중예술과 연예프로그램, 그리고 놀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III-3〉 문화예술행사 참여 선택기준(5점 척도)

〈표 III-11〉 문화예술행사 참여 선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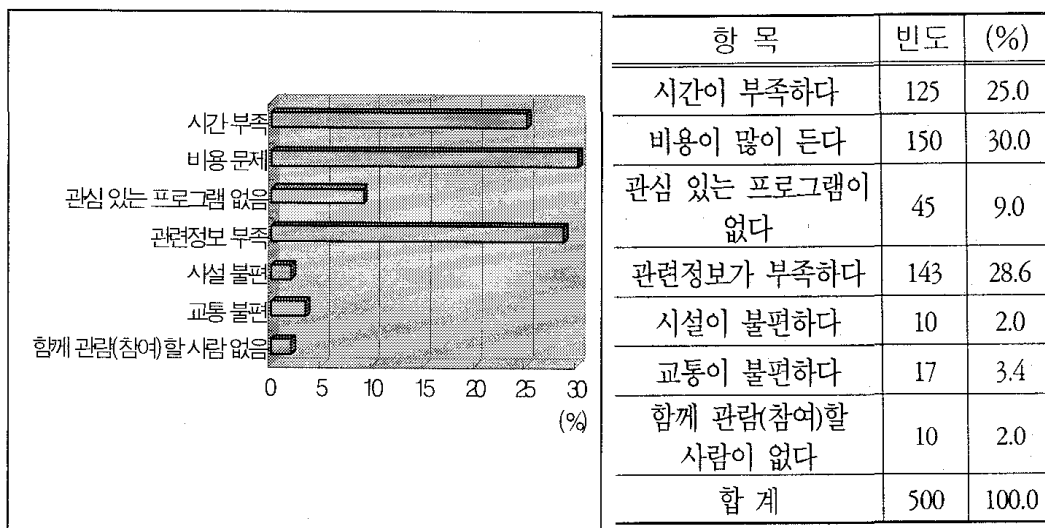
항목		매우 중요하다	중요 하다	보통 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합계
예술행사(작품)의 내용과 수준	빈도	94	328	72	4	2	500
	<%>	18.8	65.6	14.4	0.8	0.4	100
관람비용의 적정성	빈도	122	264	111	2	1	500
	<%>	24.4	52.8	22.2	0.4	0.2	100
참가자(작가, 배우, 연주자 등)의 유명도	빈도	79	262	134	23	2	500
	<%>	15.8	52.4	26.8	4.6	0.4	100
행사장소의 접근 편의성	빈도	130	274	84	9	3	500
	<%>	26	54.8	16.8	1.8	0.6	100
편의시설 구비정도	빈도	89	276	122	12	1	500
	<%>	17.8	55.2	24.4	2.4	0.2	100
행사시설의 쾌적성	빈도	101	307	87	4	1	500
	<%>	20.2	61.4	17.4	0.8	0.2	100

‘행사장소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행사 장소를 교통이 편리한 시가지 중심으로 하거나, 셔틀버스 운행(셔틀버스 운행 홍보, 운행배차시간 간격의 축소)을 통하여 문화예술행사 장소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또는 생활권역별로 주거지 주변에서 작은 규모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새로운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를 선정할 때 무엇보다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함께 이용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는 달리 문화예술행사에 참여(관람)하는데 가장 큰 제약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본 결과 <표 I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30.0%가 ‘비용이 많이 든다’를, 28.6%가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25.0%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결국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시간, 돈, 정보의 부족이 문화예술 향수 욕구를 제약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III-12> 문화예술행사 참여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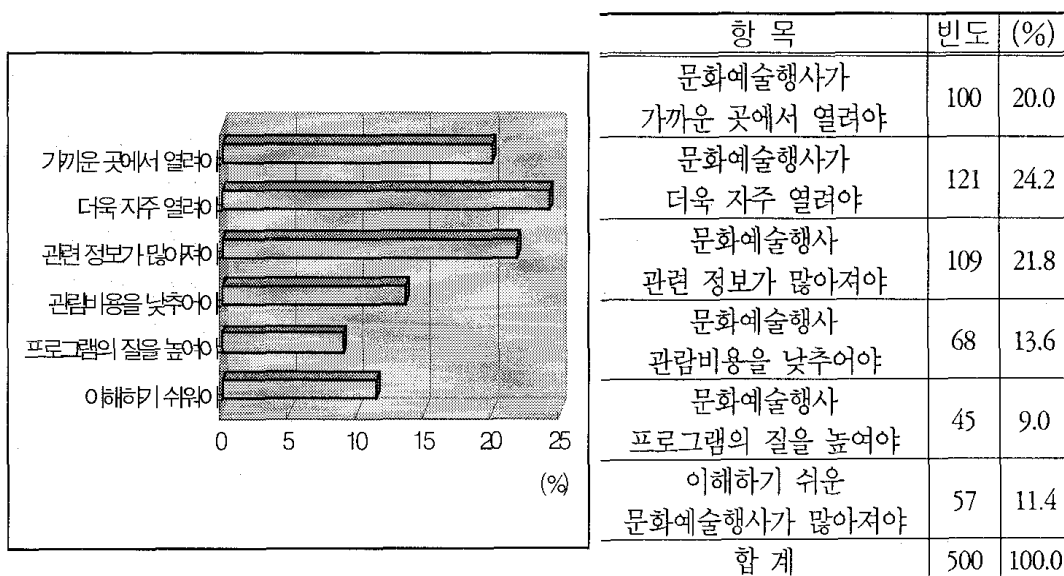


시간과 돈의 부족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경제적 여건의 문제라 하더라도 ‘관련정보 부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아직 부산시나 관련시설·단체의 문화예술관련 정보 또는 홍보 체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홍보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이에 대한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생활현장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문화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예컨대, 점심시간을 활용한 음악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야간시간대에도 문화시설, 즉 미술관, 박물관 등을 개방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앞서의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제약요인과 관련하여 부산시민의 ‘문화예술행사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질문한 결과, <표 III-13>에서와 같이 ‘문화예술행사가 더욱 자주 열려야’ 된다는 응답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행사 관련 정보가 많아져야’ 21.8%, ‘문화예술행사가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20.0%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정보와 문화예술시설의 접근성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권 제고에 긴요하다는 앞서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13> 문화예술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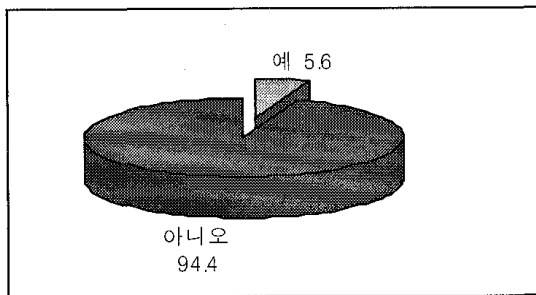


2) 문화예술 창작활동 실태

문화예술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참여의 방식은 스스로가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부산시민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여부’를 알아본 결과 <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지 5.6%(28명)만이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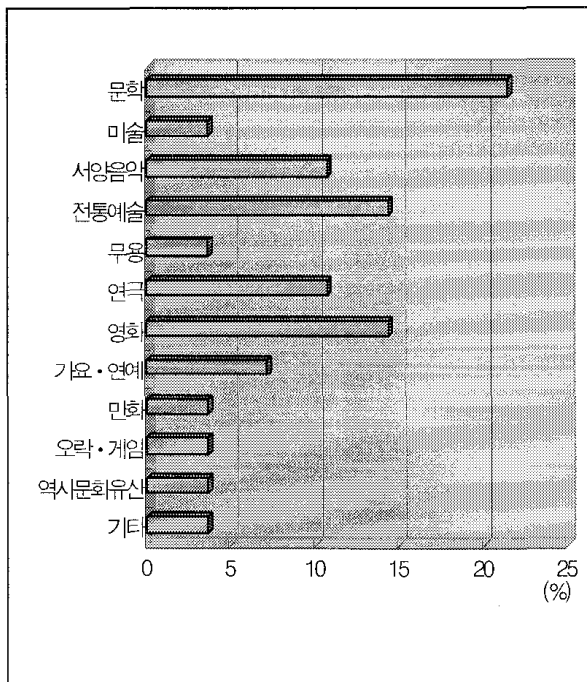
동호회 활동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문학이 2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화와 전통예술이 각각 14.3%, 연극과 서양음악이 각각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참조).

<표 III-14> 문화예술관련 동호회 참여 여부



항 목	빈도	(%)
예	28	5.6
아니오	472	94.4
합 계	500	100.0

<표 III-15> 문화동호회 참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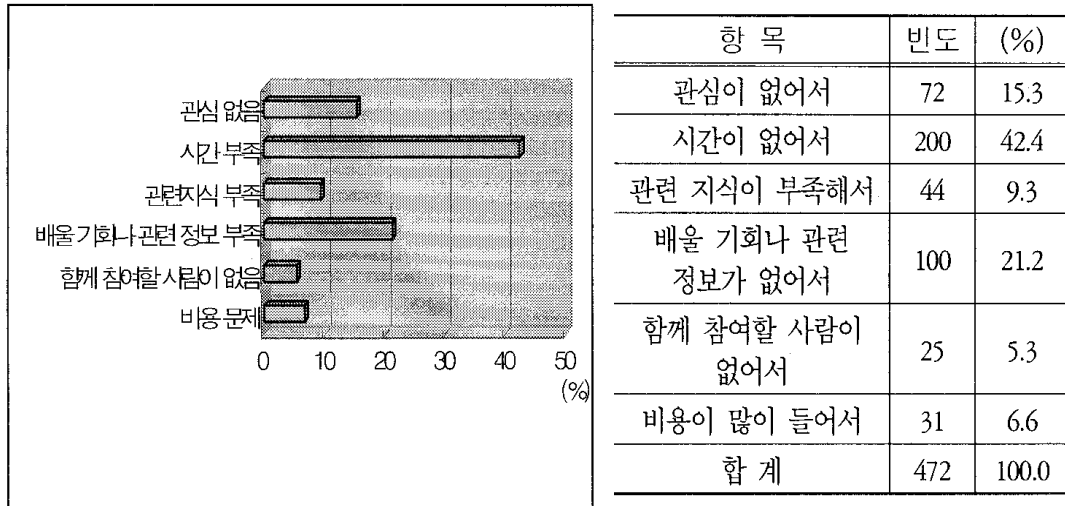


항 목	빈도	(%)
문학	6	21.4
미술	1	3.6
서양음악	3	10.7
전통예술	4	14.3
무용	1	3.6
연극	3	10.7
영화	4	14.3
가요·연예	2	7.1
만화	1	3.6
오락·게임	1	3.6
역사문화유산	1	3.6
기타	1	3.6
합 계	28	100.0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해 물어본 결과, <표 III-16>에서와 같이 ‘시간이 없어서’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배울 기회나 관련 정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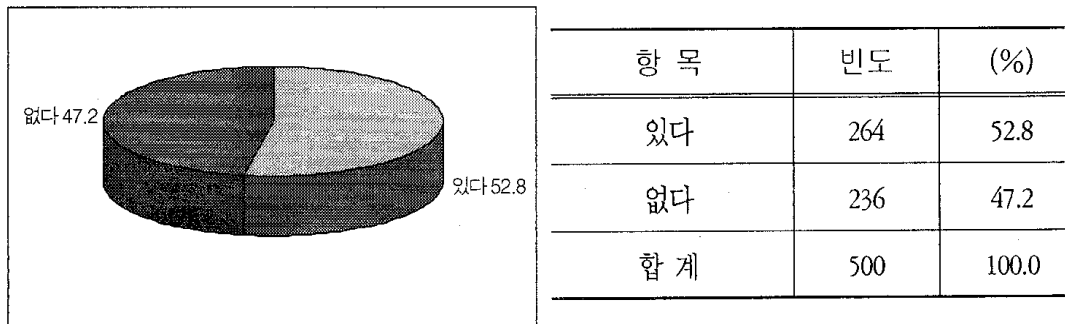
없어서' 21.2%, '관심이 없어서' 15.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6〉 문화관련 동호회 불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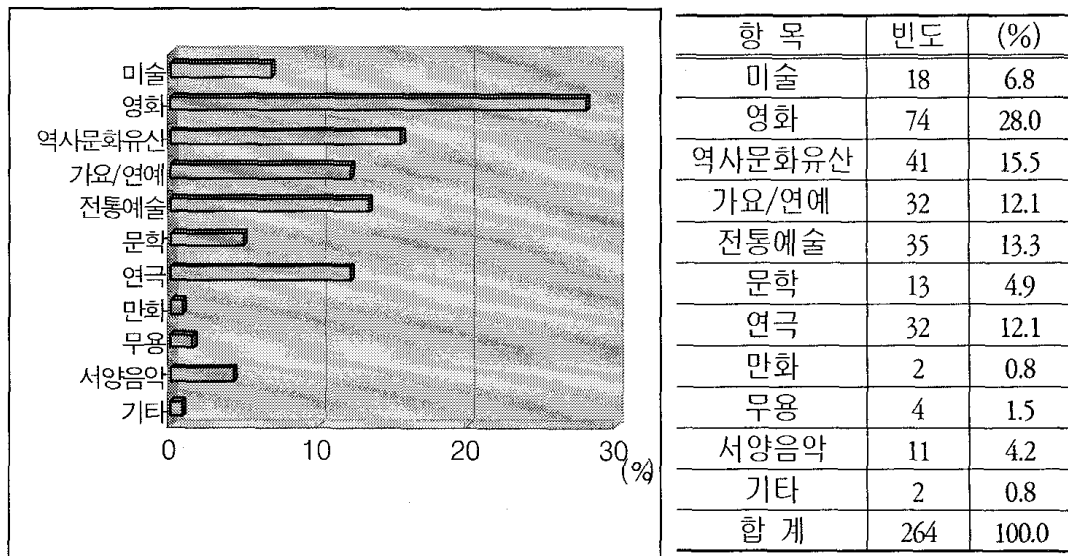
앞의 조사결과를 두고 볼 때 시민들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은 것은 관심이 없기 보다는 교육기회의 부족, 시간 및 정보의 부족이 보다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표 I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석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52.8%로 참석의향이 '없다'라는 응답 47.2%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7〉 문화예술교육 참석 의향



한편, 문화예술교육 참석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장르’를 알아 본 결과는 <표 III-1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영화가 28.0%, 역사·문화유산 15.5%, 전통예술 13.3%, 가요·연예와 연극이 각각 12.1%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만화, 무용, 서양음악, 문학 관련 교육강좌에 대한 참여의향은 5%미만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18> 문화예술교육 참여희망 장르



IV.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평가²⁵⁾

1. 문화예술정책 일반사항에 대한 평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 성과도 지니고 있음도 인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모룡(2006)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10년의 부산광역시 문화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판단된다.(중략)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10년의 부산광역시 문화정책은 근본 토대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는 지역의 문화적 환경이나 토대 그리고 기본 지표에 대한 분석 없이 정치적 목표에 따라 문화정책이 펼쳐진 데 원인이 있다.(중략) 따라서 일정한 편향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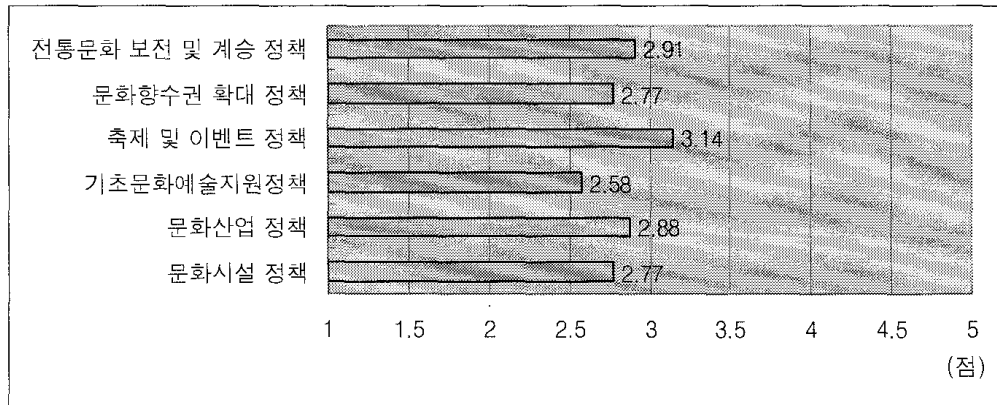
한편, 부산광역시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문화인프라의 확충, 국제적 문화예술행사의 추진, 문예창작 및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지원의 확대, 영화·영상산업 토대의 구축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부산광역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정책, 문화향수권 확대정책, 축제 및 이벤트정책, 기초문화예술지원정책, 문화산업정책, 그리고 문화시설정책의 6개 분야 각각에 대한 평가의견을 물어보았다. 분야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축제·이벤트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3.14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기초문화예술지원 정책’ 영역은 가장 낮은 2.58점으로 평가되었다(<그림 IV-1> 및 <표 IV-1> 참조). 이를 통해 다른 문화정책 분야에 비해 기초문화예술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을

25)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평가에 사용된 조사결과는 부산지역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설문조사의 결과이며, 응답자 수는 231명이다. 보다 자세한 조사 방법은 제1장 연구방법을 참조 바람

26) 부산광역시(2006b)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저 그렇다는 응답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지금까지의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하고 수용할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²⁷⁾



〈그림 IV-1〉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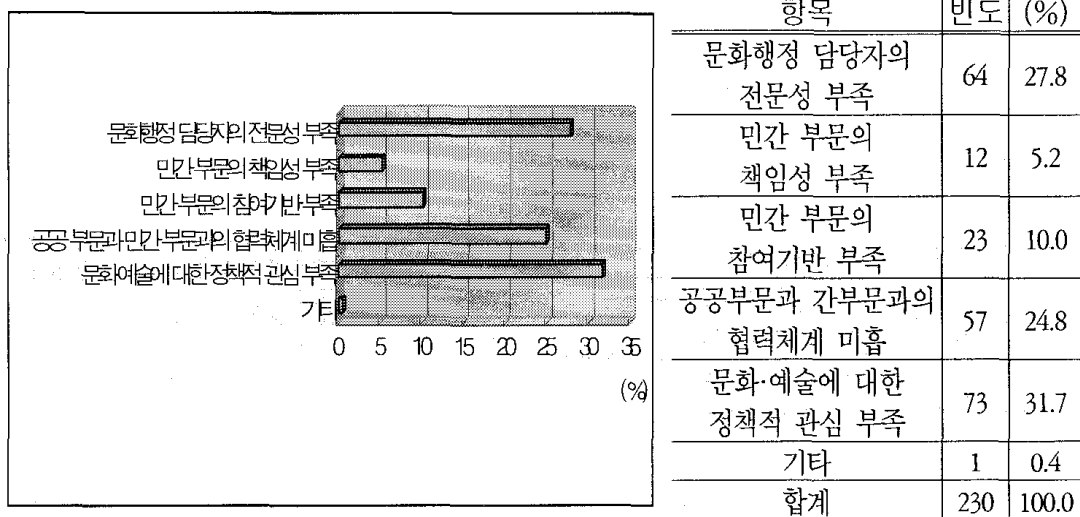
〈표 IV-1〉 문화정책 분야별 평가

항목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매우 못하고 있다	합계
문화시설 정책	빈도	1	33	126	53	18	231
	(%)	0.4	14.3	54.5	22.9	7.8	100.0
문화산업 정책	빈도	1	35	143	40	12	231
	(%)	0.4	15.2	61.9	17.3	5.2	100.0
기초문화예술 지원정책	빈도	0	19	120	68	24	231
	(%)	0.0	8.2	51.9	29.4	10.4	100.0
축제·이벤트 정책	빈도	1	75	117	29	8	230
	(%)	0.4	32.6	50.9	12.6	3.5	100.0
문화향수권 확대 정책	빈도	1	31	129	51	17	229
	(%)	0.4	13.5	56.3	22.3	7.4	100.0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정책	빈도	2	49	115	40	17	223
	(%)	0.9	22.0	51.6	17.9	7.6	100.0

27) 이러한 해석은 앞서 인용한 구모룡(2006)의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해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총괄적 평가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7%가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족’을 지적했고, 다음으로 ‘문화행정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27.8%),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체계 미흡’(24.8%)을 지적했다. 이는 부산시 시정 전체에 있어서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적 관심의 부족문제²⁸⁾를 지적함과 아울러 문화예술정책 내부적으로는 관련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민·관협력의 미흡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2〉 부산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



2.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1) 문화예술 활동여건 및 현황 평가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에는 문화예술인(단체)이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하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71.9%로 문화예술관련 전문가들은 부산지역의 문

28)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부족’은 절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경제 및 산업정책, 지역개발정책, 관광정책, 복지정책 등 여타의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게 주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예술활동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2.22점(표준편차 0.68)으로 평가되었다.

〈표 IV-3〉 문화예술활동 여건 평가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문화활동여건	빈도	2	4	59	143	23	231
	(%)	0.9	1.7	25.5	61.9	10.0	100

한편, ‘부산에는 문화예술인(단체)이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보통이다’ 54.5%, ‘그렇지 않다’ 29.4%, ‘그렇다’ 16.1%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2.88점(표준편차 0.72)으로 평가되었다(〈표 IV-4〉 참조).

〈표 IV-4〉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평가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문화활동활발	빈도	5	32	126	67	1	231
	(%)	2.2	13.9	54.5	29.0	0.4	100

이와 관련하여 ‘부산에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풍부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2.0%, ‘보통이다’ 39.8%, ‘그렇다’ 8.2%로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2.55점(표준편차 0.71)으로 평가되었다(〈표 IV-5〉 참조).

〈표 IV-5〉 문화예술행사 양적 평가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문화예술풍부	빈도	3	16	92	115	5	231
	(%)	1.3	6.9	39.8	49.8	2.2	100

또한 <표 IV-6>에서와 같이 부산지역의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과 관련한 평가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전반적 내용이 훌륭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보통이다’가 59.6%, ‘그렇지 않다’ 28.7%, ‘그렇다’ 11.8%순으로 응답했으며,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2.83점(표준편차 0.66)으로 평가되었다.

〈표 IV-6〉 문화예술행사 수준 평가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문화행사수준	빈도	2	25	137	63	3	230
	(%)	0.9	10.9	59.6	27.4	1.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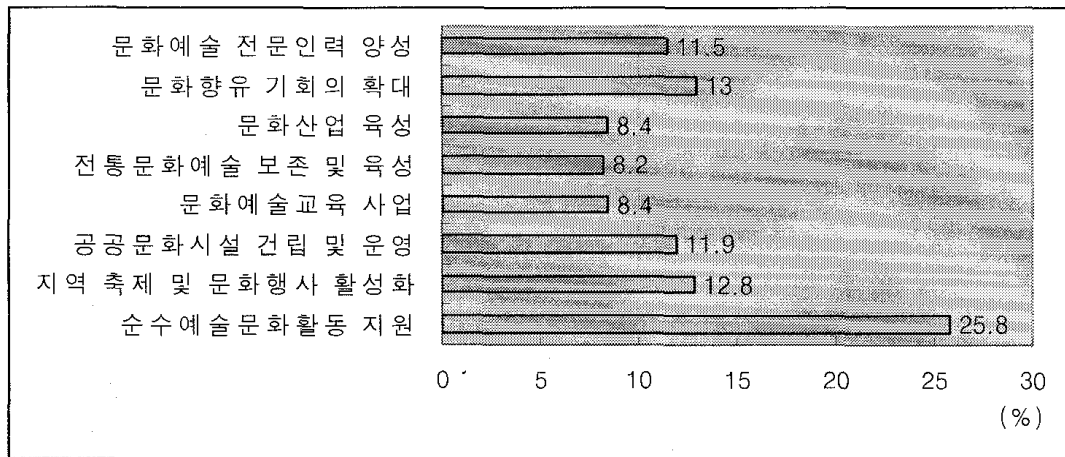
이러한 앞서의 몇 가지 조사결과를 연관지어 정리해보면, “부산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활동내용의 수준도 높지 못하다. 또한 그 결과로 부산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활동여건이 좋다고 하여 반드시 활동이 활발하거나 내용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여건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 이를 위한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들 역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굳이 설문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의 확충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평

가를 지원예산 투입부문의 우선순위와 부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평가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지역문화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1순위 사업으로 ‘순수예술문화활동’(44.2%)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는 ‘공공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15.6%)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2순위 지원사업으로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활성화’(19.5%)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를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순수예술문화활동 지원’(25.8%),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13.0%),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활성화’(12.8%)의 순으로 지역 문화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나타났다(<그림 IV-2> 및 <표 IV-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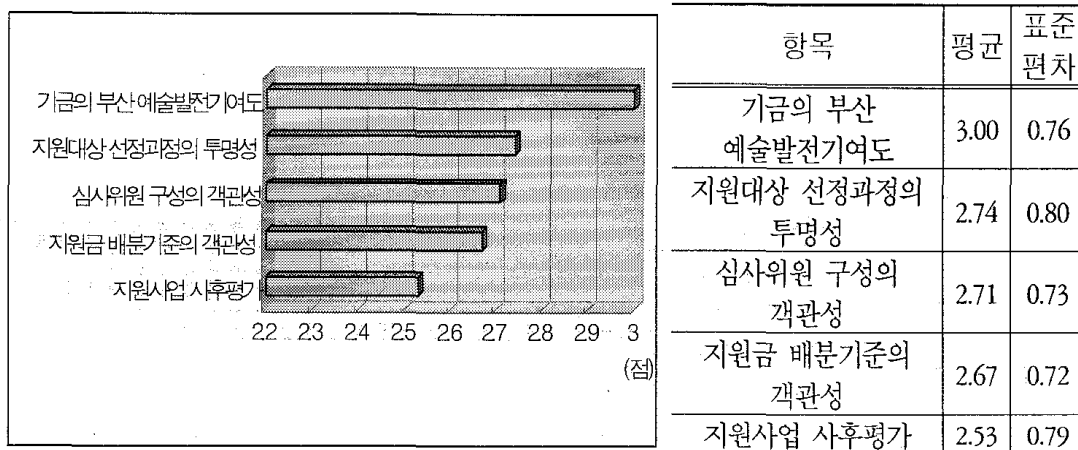
〈그림 IV-2〉 지역문화예산 우선 지원사업(다중응답)

〈표 IV-7〉 지역문화예산 우선 지원사업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순수예술문화활동 지원	102	44.2	17	7.4	119	25.8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활성화	14	6.1	45	19.5	59	12.8
공공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36	15.6	19	8.2	55	11.9
문화예술교육 사업	15	6.5	24	10.4	39	8.4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육성	9	3.9	29	12.6	38	8.2
문화산업 육성	18	7.8	21	9.1	39	8.4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22	9.5	38	16.5	60	13.0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15	6.5	38	16.5	53	11.5
합계	231	100.0	231	100.0	462	100.0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기금의 부산 문화예술 발전에의 기여도,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투명성, 심사위원 구성의 객관성, 지원금 배분기준의 객관성, 그리고 지원사업의 사후평가와 관련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표 IV-8>을 통해 보면, 부산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부산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여도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3.0점으로 평가되었고 부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2.74점, 심사위원 구성의 객관성은 2.71점, 지원금 배분기준의 객관성 2.67점, 지원사업 사후평가 2.53점으로 각각 평가되었다.²⁹⁾

<표 IV-8> 부산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평가(5점 척도)



<표 IV-9> 부산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의견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기금의 부산 문화예술발전기여도	빈도	5	48	120	55	2	230
	(%)	2.2	20.9	52.2	23.9	0.9	100.0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투명성	빈도	2	35	105	77	11	230
	(%)	0.9	15.2	45.7	33.5	4.8	100.0
심사위원 구성의 객관성	빈도	1	26	117	77	9	230
	(%)	0.4	11.3	50.9	33.5	3.9	100.0
지원금 배분기준의 객관성	빈도	2	19	117	83	8	229
	(%)	0.9	8.3	51.1	36.2	3.5	100.0
지원사업 사후평가	빈도	1	22	92	97	17	229
	(%)	0.4	9.6	40.2	42.4	7.4	100.0

29)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 IV-9>를 참조

이러한 설문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지원예산의 규모, 지원사업 선정과정, 그리고 사후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지원의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단체 혹은 작품에 지원을 하다보니 소액다건주의식의 지원이 일반화되고, 그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를 이루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급제의 도입이다. 사업신청 규모(사업규모)별로 등급을 나누어 각자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이 이루어지고, 등급별로 심의, 지원하는 방안이다.’ 라는 의견과 함께 ‘소액다건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다액소건주의 또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소액의 지원이라도 있어야 활동이 가능한 소규모 단체(소극장 등)의 경우 적은 예산이나마 지원받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할 우려가 높은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각종 지원사업의 총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지원사업 선정과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이나 심사기준의 경우 객관성, 예측가능성이 의문스럽다. 선정된 심사위원과 선정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시기준, 심사방식의 기본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부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공모와 심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연단체 지원에 있어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소수 평가자들에 의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따른 문제가 있다.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작품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평가위원의 수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원사업의 경우 연속성을 보장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년 단위의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작품, 특히 공연작품이 단기간에 완성되지 못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요구되고 있으며, 그와 병행하여 지원금의 운

용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다수이다.

3. 문화예술 향수권 제고 정책에 대한 평가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제고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축제 및 이벤트 정책,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정책, 문화산업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앞의 <그림 IV-1>와 <표 IV-1>에서와 같이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향수의 내용을 이루는 측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평가를 통하여 문화예술 향수권 제고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산에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풍부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1.6%, ‘풍부하지 않다’ 33.4%, ‘풍부하다’ 25.0% 순으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에 평균 2.89점(표준편차 0.84)으로 평가되었다(<표 IV-10> 참조).³⁰⁾

<표 IV-10> 시민 문화예술 행사 참여기회 평가(일반시민)

항 목	빈도	<%>
매우 그렇다	3	0.6
그렇다	122	24.4
보통이다	208	41.6
그렇지 않다	149	29.8
전혀 그렇지 않다	18	3.6
합 계	500	100.0

한편, ‘부산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전시회, 공연, 축제 등)의 전반적 내용이 훌륭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보통이다’ 51.0%, ‘그렇다’ 27.4%, ‘그렇지 않다’ 21.6% 순으로 응답했으며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04점(표준편차 0.76)

30)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향유할 문화예술행사가 풍부하지 않다는 응답이 52.0%로 일반시민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표 IV-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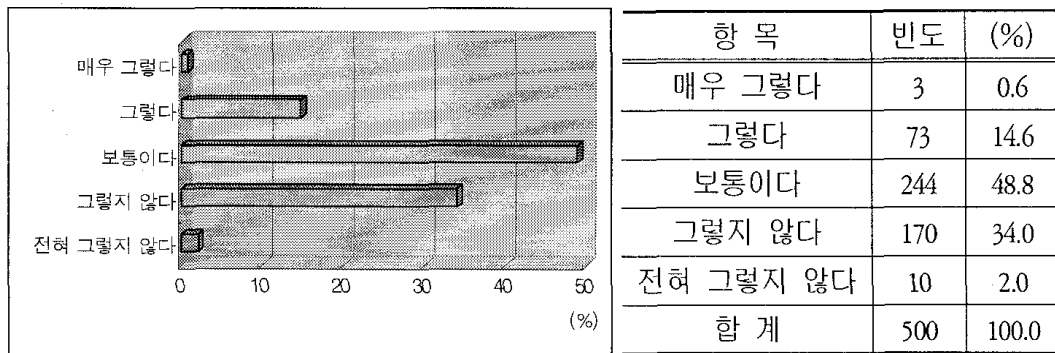
으로 조사되었다(<표 IV-11> 참조).³¹⁾

〈표 IV-11〉 부산지역 문화예술행사 수준평가(일반시민)

항 목	빈도	<%>
매우 그렇다	4	0.8
그렇다	133	26.6
보통이다	255	51.0
그렇지 않다	97	19.4
전혀 그렇지 않다	11	2.2
합 계	500	100.0

끝으로 ‘부산광역시가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홍보를 잘 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8.8%, ‘그렇지 않다’ 36.0%, ‘그렇다’ 15.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5점 만점에 평균 2.78점(표준편차 0.74)으로 평가되어 부정적인 응답이 약간 우세하였다(<표 IV-12> 참조).

〈표 IV-12〉 부산시의 문화예술행사 홍보 평가(일반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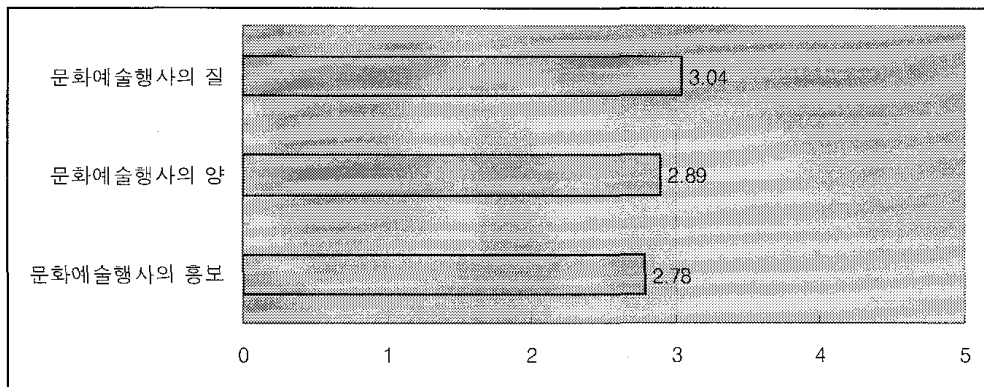


이 같은 조사결과를 정리하자면 <그림 IV-3>에서 보듯이,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나타난 반면, 문화예술행사의 개최 횟수와 문화예술행사의 홍보³²⁾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응

31)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부산의 문화예술행사의 전반적 내용이 훌륭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1.8%로 일반시민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표 IV-6> 참조).

32) 앞서 소개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시민들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를 제약하는 요

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³³⁾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정책이 문화예술행사의 개최를 늘임과 동시에 다양화하고, 관련 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향지워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 IV-3〉 문화예술행사 홍보·양적·질적 평가(일반시민)

이와 더불어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문화시설, 문화향수권 신장으로 인한 혜택이 지역내 각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구(군) 단위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예술정책과 관련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여 문화향수 수준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부산시민들의 문화예술향수가 내용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정책적 불균형의 한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⁴⁾ 즉, 부산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실태조사에서 대중가요콘서트·연예, 영화, 축제 등 대중문화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순수문화예술의 향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으로서 문화예술향수에 있어서의 내용적 불균형이 확인되고 있다(<표

인으로 시간, 돈, 정보의 부족으로 지적인 사실을 두고 볼 때, 문화예술 관련정보의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화향수권이 제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바, 이 역시 홍보의 부족과 맥을 같이 하는 사실이라 하겠다.

33) 물론 이러한 응답결과는 기본적인 경향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각 질문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상당부분 높게 나타난 것은 홍보, 개최횟수, 질적 수준에 대해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 혹은 굳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물론 이를 개인의 기호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거나 상업화된 문화에의 노출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취향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결여되었거나 부족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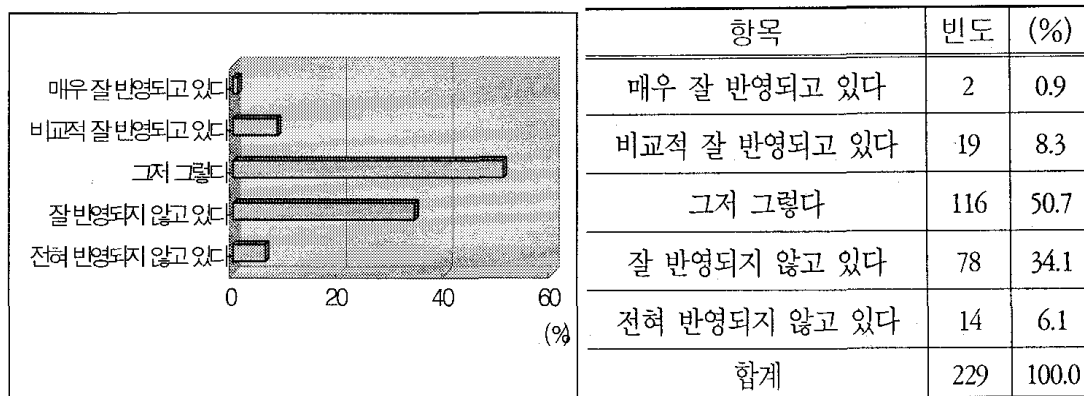
III-8> 참조).

4. 문화예술진흥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1) 조직 및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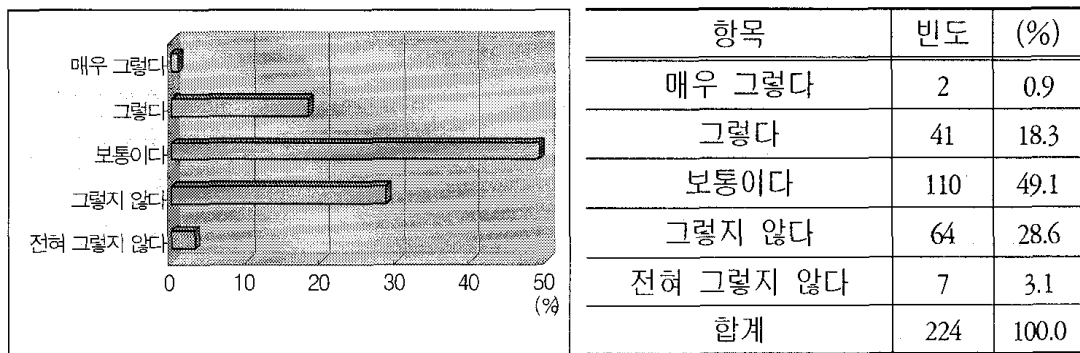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관련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 전문성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의 미흡 또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의 의사결정에서 민간 문화예술전문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적 의견은 9.2%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40.2%,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0.7%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2.64점(표준편차 0.76)으로 평가되었다(<표 IV-13> 참조). 이러한 조사내용은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부산시의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정에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통로가 없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역할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며 그 구성 역시 문제가 있다.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V-13〉 민간 문화예술전문인들의 의견 반영도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하여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대표적인 기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조례에 기초하여 설치되는 기구로서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을 형성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심의·결정기능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구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부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부산시 문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49.1%, ‘그렇지 않다’ 31.7%, ‘그렇다’ 27.2% 순으로 응답했다.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2.85점(표준편차 0.78)으로 평가되었다(<표 IV-14> 참조). 이 같은 응답결과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낮은 기대감의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표 IV-14〉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영향력 평가



한편,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추진체계의 개편 필요성 및 그 방향에 대해 ‘공무원 중심으로 문화예술정책이 추진됨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향후 문화예술정책의 집행의 민간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단의 설립,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문화관광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도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문화예술 관련예산에 대한 평가

부산광역시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예산,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진

홍예산의 총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도시규모에 비해서도 타 시도보다 작다는 것에 대하여 문화예술인이나 관련공무원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문화예술 관련예산의 규모 및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간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에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대체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현장에서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산의 배분,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성과관리 등에 있어서 객관성, 투명성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³⁵⁾

3) 문화시설에 대한 평가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문화시설의 양, 시설수준, 활용도, 이용시 문제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먼저, ‘부산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풍부하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6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2.27점(표준편차 0.72)으로 낮게 평가되었다³⁶⁾.

〈표 IV-15〉 부산 문화시설 충분성 평가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문화시설충분	빈도	3	7	61	138	21	230
	(%)	1.3	3.0	26.5	60.0	9.1	100

35) 이에 관해서는 문화예술 창작지원 정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앞서 제시한 바 있으니 참조 바란다.

36) 문화시설별로 충분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가점수 5점 만점에 지역문화회관이 2.65점으로 가장 높이 나왔고, 공원이 1.89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그 외 공연시설 2.45점, 전시시설 2.4점, 공공도서관 2.2점, 공공체육시설 2.11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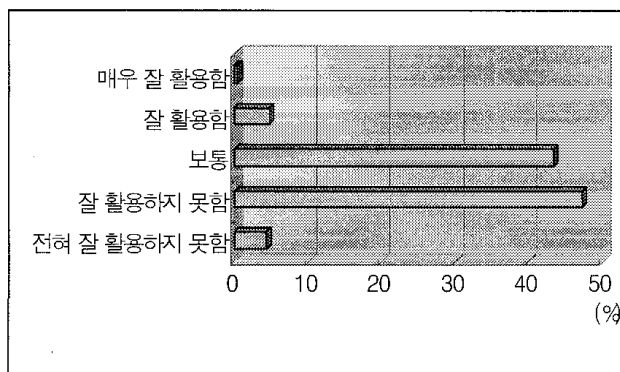
그리고 <표 IV-16>에서와 같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전시·공연시설의 시설수준은 훌륭하다’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그렇다’는 응답은 6.5%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51.1%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2.49점(표준편차 0.75)으로 평가되었다.

〈표 IV-16〉 부산 문화시설수준 평가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시설수준	빈도	2	13	98	101	17	231
	(%)	0.9	5.6	42.4	43.7	7.4	100

한편, 문화시설의 활용도와 관련하여 ‘부산 지역의 공공 문화시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인 51.5%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43.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점수 2.5점(표준편차 0.68)으로 평가되었다(<표 IV-17> 참조).

〈표 IV-17〉 문화시설 활용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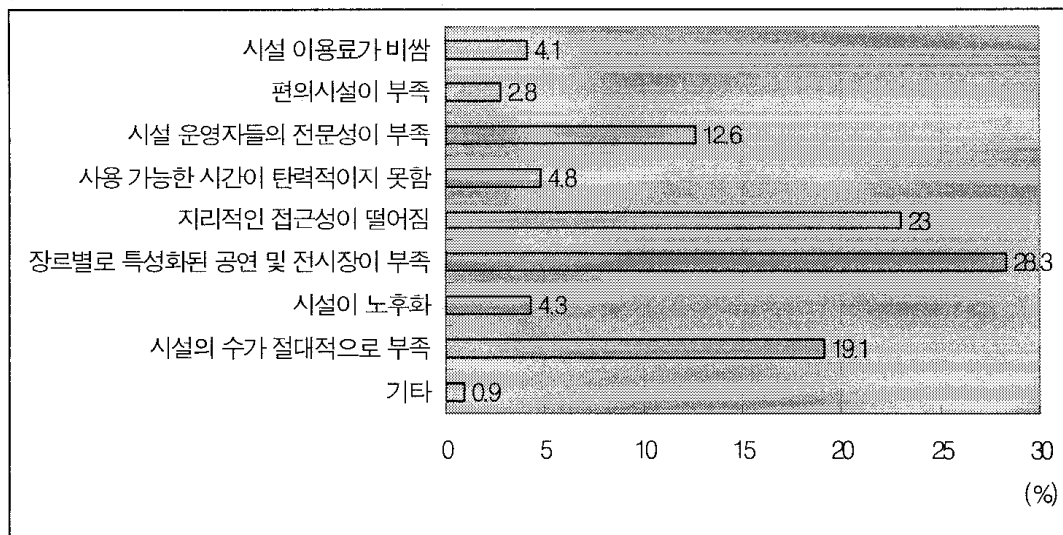
항목	빈도	(%)
매우 그렇다	1	0.4
그렇다	11	4.8
보통이다	100	43.3
그렇지 않다	109	47.2
전혀 그렇지 않다	10	4.3
합계	231	100.0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관련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함께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문화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문화마인드, 예술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문화시설의 이용료 부담을 줄이는 것과 유휴시설을 문화예술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규시설의 경우 장르별 특성화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연관적으로 정리해보면, “부산의 문화시설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수준이 높지 못하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문화시설조차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1순위로 지적한 내용은 30.3%가 ‘문화예술 장르별로 특성화된 공연 및 전시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지리적 접근성 미흡’ 25.1%, ‘시설 수의 절대부족’ 24.7%의 순이었다. 한편 2순위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 장르별 특성화된 시설 부족’, ‘지리적 접근성 미흡’, ‘시설 운영자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다중응답 분석결과를 통하여 보면, ‘문화예술 장르별로 특성화된 공연 및 전시장이 부족하다’(28.3%),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23.0%), ‘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19.1%)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그림 IV-4>, <표 IV-18> 참조).



〈그림 IV-4〉 문화시설 이용시의 문제점(다중응답)

〈표 IV-18〉 문화시설 이용시의 문제점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57	24.7	31	13.5	88	19.1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11	4.8	9	3.9	20	4.3
문화예술 장르별로 특성화된 공연 및 전시장이 부족하다	70	30.3	60	26.2	130	28.3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	58	25.1	48	21.0	106	23.0
사용 가능한 시간이 탄력적이지 못하다	5	2.2	17	7.4	22	4.8
시설 운영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20	8.7	38	16.6	58	12.6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5	2.2	8	3.5	13	2.8
시설 이용료가 비싸다	4	1.7	15	6.6	19	4.1
기타	1	0.4	3	1.3	4	0.9
합계	231	100.0	229	100.0	460	100.0

이 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볼 때, 향후 문화시설의 확충은 한편으로는 장르별 전문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근접형 문화시설 확충으로 방향지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의 확충에 못지않게 시설 운영방식의 개선 역시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알 수 있다.

V.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 개선방안

1.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방향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추진방향이 무엇인지는 명료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록 부산시 문화정책의 방향이 문화의 대중화,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세계화로 되어 있지만 문화예술진흥정책에 얼마나 실효적으로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아래의 <표 V-1>에서의 문화전략 유형 구분과도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³⁷⁾ 그런 점에서 부산시의 문화예술정책의 정책방향은 방향성이 미약한 병렬적 정책의 추진으로 이해된다.

임학순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그 방향으로 첫째, 시설설치 중심에서 예술경영 중심으로, 둘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셋째, 획일적인 데서부터 다양성 증진의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일방향의 폐쇄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쌍방향의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³⁸⁾

한편, 세계의 선진문화도시들의 경우 차별화된 문화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다음의 <표 V-1>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37) <표 V-1>에서 구분된 유형을 부산시 문화정책에 적용해 보면, 여러 가지 유형요소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굳이 가장 가까운 유형을 선택하자면 ‘도시경영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38) 임학순(2006)

〈표 V-1〉 세계도시의 문화전략

기본방향	구분	내용	주요도시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지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연적으로 형성 •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요소 및 저력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자원 및 도시인프라 개선을 통해 문화도시로 재정비 	코펜하겐 동경 런던
	커뮤니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 조성 • 커뮤니티는 도시의 운영과 개선을 위한 하나의 주체이자 활동의 중심 역할 • 도시마케팅 개념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부지향적인 성격 	꾸리찌바 어바인
경제 활성화	도시경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마케팅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적창조적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역량 및 가능성을 부각 -과거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문화를 통해 개선 -퇴락하는 공업산업도시에 새로운 이미지 부여 -새로운 문화시설 도입을 통한 도시이미지 부각 -문화축제, 이벤트 등을 통한 도시홍보 	빌바오 구마모토 싱가포르 토론토 리버풀
	문화창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 활동을 통해 문화산업생산에 있어 풍부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탈 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을 갖추 • 내발적 발전을 통한 자족적인 도시문화 형성 	가나자와 볼로냐

자료 : 김효정(2006, 174)

과연 어떤 방향에서의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위정책목표와 부합하는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방향을 선택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게 선정되어 있을 때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세부적인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다. 우선, 부산을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강조점을 두어야 할 정책영역’에 대해서는 <표 V-2>에서와 같이 30.9%가 ‘기초문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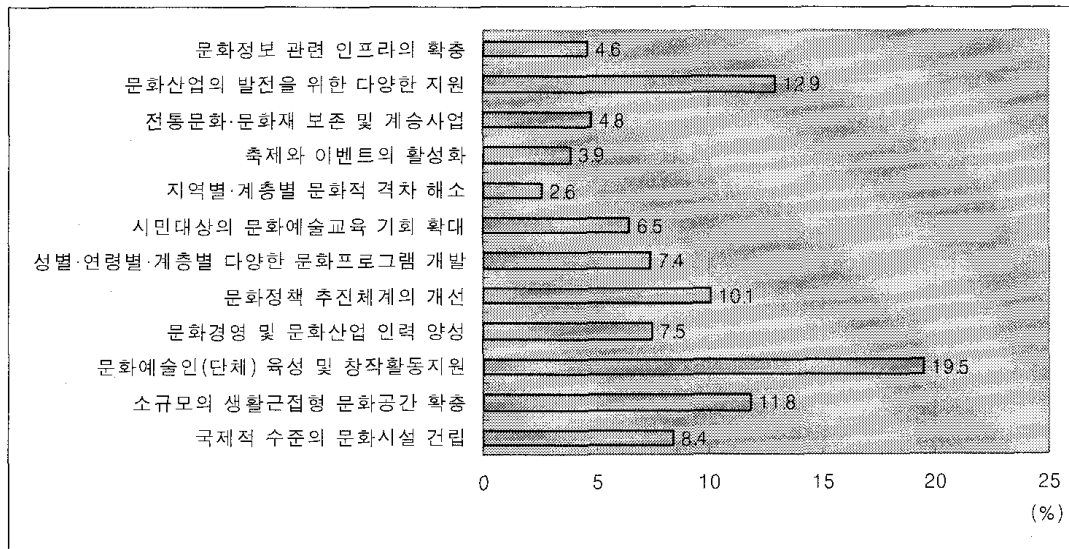
술의 육성'을 역점 정책영역으로 보았고 다음으로 '문화시설의 확충'(27.8%), '문화산업의 육성'(26.1%)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V-2〉 역점 문화 정책

항목	빈도	(%)
기초문화예술의 육성	71	30.9
문화시설의 확충	64	27.8
문화산업의 육성	60	26.1
문화 향수권 신장	17	7.4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18	7.8
합계	230	100.0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달리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관련해서 부산을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그림 V-1>와 <표 V-3>에서 보듯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서는 응답자의 30.3%가 '문화예술인(단체)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을 꼽았고 다음으로 '국제적 수준의 문화시설 건립'(18.2%), '소규모 생활근접형 문화공간 확충'(16.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다중응답 결과로 분석해보면 '문화예술인(단체)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19.5%),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12.9%), '소규모의 생활근접형 문화공간 확충'(11.8%), '문화정책 추진체계의 개선'(10.1%) 순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순위 정책과제로는 '문화예술인 단체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18.6%),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14.7%), '문화경영 및 문화산업인력 육성'(12.1%) 등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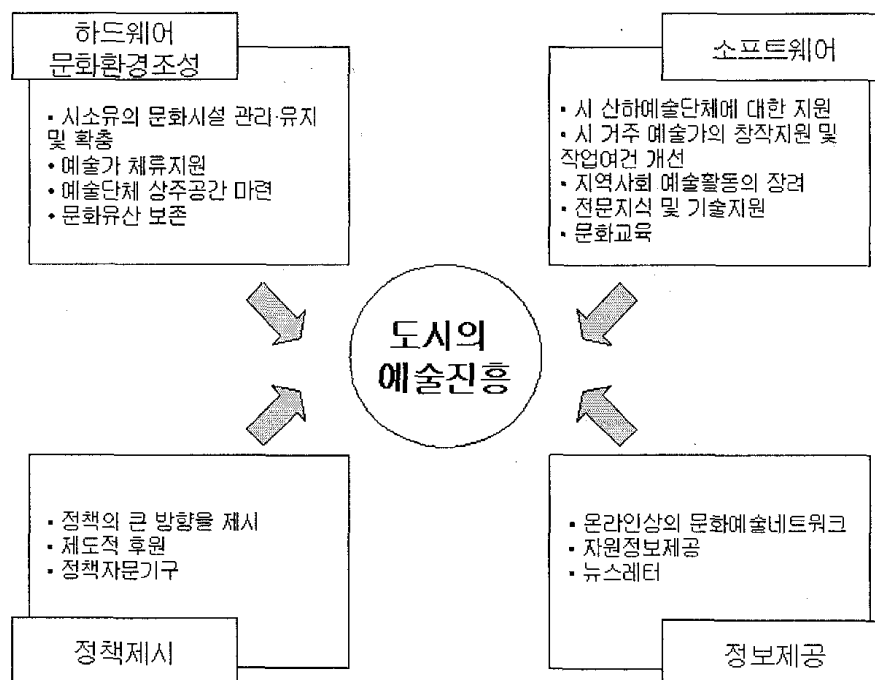
〈그림 V-1〉 문화정책과제 우선순위(다중응답)

〈표 V-3〉 문화정책과제 우선순위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국제적 수준의 문화시설 건립	42	18.2	7	3.0	9	3.9	58	8.4
소규모의 생활근접형 문화공간 확충	38	16.5	23	10.0	21	9.1	82	11.8
문화예술인(단체) 육성 및 창작활동지원	70	30.3	43	18.6	22	9.6	135	19.5
문화경영 및 문화산업 인력 양성	8	3.5	28	12.1	16	7.0	52	7.5
문화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24	10.4	25	10.8	21	9.1	70	10.1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8	3.5	27	11.7	16	7.0	51	7.4
시민대상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10	4.3	14	6.1	21	9.1	45	6.5
지역별·계층별 문화적 격차 해소	1	0.4	7	3.0	10	4.3	18	2.6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 제고를 위한 축제와 이벤트의 활성화	4	1.7	7	3.0	16	7.0	27	3.9
전통문화·문화재 보존 및 계승사업	8	3.5	10	4.3	15	6.5	33	4.8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14	6.1	34	14.7	41	17.8	89	12.9
문화정보 관련 인프라의 확충	4	1.7	6	2.6	22	9.6	32	4.6
합계	231	100.0	231	100.0	230	100.0	692	100.0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향후 부산시의 문화예술정책은 기초문화 예술의 진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산업의 육성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시민들의 생활현장 및 생활감각과 접근성이 높은 문화공간의 개발 및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도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은 내용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적 개입영역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책제시, 그리고 정보제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영역의 세부적 사항은 다음의 <그림 V-2>를 참조할 수 있다.



자료 : 이호열(2003)

<그림 V-2> 도시의 예술진흥정책 개입영역

2.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개선방안

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의 방향 정립

앞서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방향이 병렬적이라고 하였던 바와 같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 역시 방향성이 없거나 모호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한된 지원재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의 방향을 체계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라도삼은 외국의 문예지원사업의 새로운 경향을 첫째, 국가보다는 지방정부가 지원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 둘째,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지원방향과 관련해서는 “향후 지원방식은 예술을 단지 대상으로 취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의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경제적·재정적 지원보다는 그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며, 시민들의 삶 속에 문화예술을 내재시키고, 예술을 활용하여 사회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⁹⁾

이러한 논의를 참고로 할 때, 부산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은 부산의 도시정체성 및 이미지 강화, 공공성 증진에의 기여,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부분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여타의 부분에 대한 지원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지원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함께 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9) 라도삼·이호영(2003)

(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활성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제도로서 창작활동 지원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의 자주적 활동을 통해 활동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산시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각종 공공지원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우선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도록 지원, 지도함으로써 제도의 취지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비예산 지원방안의 개발

부산시가 예산에만 의존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재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많으면서 또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 및 시설의 제공, 각종 문화예술 행사 참여기회의 제공, 문화예술 거리공연 및 전시가 가능할 수 있는 공연거리 조성 및 운영 등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4) 공공예술지원사업의 시행

공공예술지원사업은 다수의 시민들이 집결하거나 이용하는 공공장소, 예컨대 공원, 체육시설, 유원지 가로, 문화시설 등에 예술품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제고함과 아울러 도시공간의 심미성을 높이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시행은 문화예술인, 특히 미술인들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하나로도 이해할 수 있다.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은 미술품 장식제도에 따라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별도의 공공예술기금으로 수용함으로써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

은 미술품 장식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도시 전체를 계획적으로 예술성 높은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가칭)아트뱅크(Art Bank)를 설립하여 미술품을 구입하여 대여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우 미술품 향유기회를 확장할 수 있으며, 작가들에게는 작품의 판로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공공예술지원사업이라 할 것이다.

2) 문화향수권 제고정책의 개선방안

앞서 문화예술 향수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생활근접형 문화공간의 확대와 문화예술공연 접촉기회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감성을 자극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 역시 필요한 정책이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종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해서 시민들을 단순히 수동적인 소비자로 인식해온 경향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단순히 소비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창작활동에의 참여로 까지 발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욕구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향수권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제도는 이미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그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부산시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중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욕구가 개발됨으로써 향후 지역의 문화예술적 토양이 매우 강화될 수 있

다는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지역의 문화예술시장, 문화산업시장의 확대 효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반으로써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민간단체나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공문화시설에서부터 문화예술교육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방과 후 예술학교의 운영 등과 같이 학교 문화예술교육 또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2) 종합적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의 구축

앞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시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의 참여가 제약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정보의 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단체 또는 기관의 경영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집적되고 소통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경우 개별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별적인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가칭)부산문화재단의 설립과 함께 재단에서 운용하는 부산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진작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는 지역 내 각종 문화예술 관련자료의 정보화,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의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관련정보, 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 문화예술 정책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망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온라인상의 문화예술거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방향지워져야 한다.

(3)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개최 확대 및 지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비영리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이 경우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부산시립 예술단의 활동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찾아 가는 예술활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랑티켓제도, 문화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다. 각종 문화예술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의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촉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문화예술동호회가 참여하는 경진대회의 개최, 문화예술동호회의 문화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성·장애인, 노인,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문강사 지원제도의 마련 등을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예술정책 추진기반의 개선방안

(1) 조직 및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민간참여 기회의 제약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함과 아울러 이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경우 참여의 폭 확대, 조례상 기능의 활성화, 정례적인 개최, 회의결과의 공개 등이 될 것이다. 또한 각종 심의기구의 경우 민간 참여자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심의기준의 객관화, 심의 및 결정과정, 그리고 결과의 공개 등을 통해서 참여의 확대와 운영의 객관화, 투명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칭)부산문화재단 혹은 (가칭)부산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로는 서울시(2004년), 인천시(2004년), 광주시(2004년),

경기도(1997년), 강원도(1999년), 제주도(2000년)가, 기초자치체로서는 서울 중구(2004년), 경기도 고양시(2004년), 부천시(2001년), 성남시(2004년)가 이미 문화재단 혹은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예술정책의 상당부분을 집행하고 있다.⁴⁰⁾ 이는 민간화에 기반하여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어 부산시로서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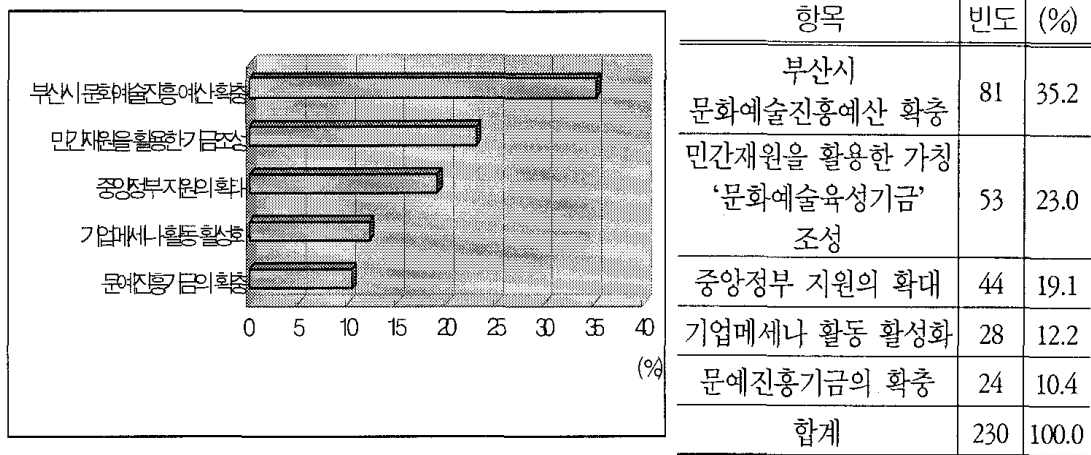
다른 한편 문화시설의 운영형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김해 문화의 전당 등 대체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시설로 평가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민간참여에 기반한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음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재단법인의 설립, 책임경영제의 도입, 민간단체 위탁 등 다양한 방식이 있어 지역 현실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전문성과 적극적 의지가 부족한 공무원이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탈피하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2) 예산 및 재정기반의 개선방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의 근본적인 과제로서 지원재정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부산시의 관련예산 확충을 제일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 V-4>에서 보듯이,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는 ‘부산시 문화예술진흥 예산을 확충’(35.2%)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민간재원을 활용한 가칭 ‘문화예술육성기금’ 조성’(23.0%)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0) 국회에 입법 제안되어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안(이광철 의원 대표 발의)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제2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제정 결과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재단의 설립에 관한 최종판단이 필요하다.

〈표 V-4〉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자원 확충 방안



이런 점을 기초로 하여 볼 때, 부산시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예산의 확대와 함께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지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칭)부산문화예술 메세나협회의 설립은 매우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부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제약되어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정책적 의지를 갖고 민간부문을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부산메세나협의회가 부분적으로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인들의 참여를 설득하고, 시상제도의 마련, 유·무형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진흥기반의 확충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바람직한 지원방향'과 관련해서는 <표 V-5>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28.5%가 '문화예술사업 규모별로 등급을 나누어 등급별로 심의·지원'하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음으로 '많은 단체(개인)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27.2%),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단체(개인)에게 중점적인 지원'하는 방안(24.1%)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사결과만으로는 어떤 방향이 과연 최적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산업 규모별로 등급을 나누어 등급별로 신청하고 심사,

지원하는 방안은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이나 중점지원 방안의 상반된 견해를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5〉 문예진흥기금 지원 방향

항목	빈도	(%)
많은 단체(개인)에게 골고루 배분	62	27.2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단체(개인)에게 중점적인 지원	55	24.1
대규모의 공연·전시·이벤트 등에 중점적인 지원	4	1.8
지역내 소규모의 공연·전시·이벤트 등에 많은 지원	41	18.0
문화예술사업 규모별로 등급을 나누어 등급별로 심의·지원	65	28.5
기타	1	0.4
합계	228	100.0

부산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개선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관건이 아닐 수 없으며,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전문가 범위 및 수의 확대, 문화예술 활동현장의 여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심의·평가방법의 활용 등이 요구되어진다.

(3) 문화시설의 개선방안

문화예술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설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시설의 확충은 그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며, 향후에도 계획되어 있는 시설이 다수 있다.⁴¹⁾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산시의 계획과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의 문화시설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부산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표 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반수가 넘는 66.1%가 ‘소규모의 생활근접형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외에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19.1%)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부산시가 계획중인 ‘대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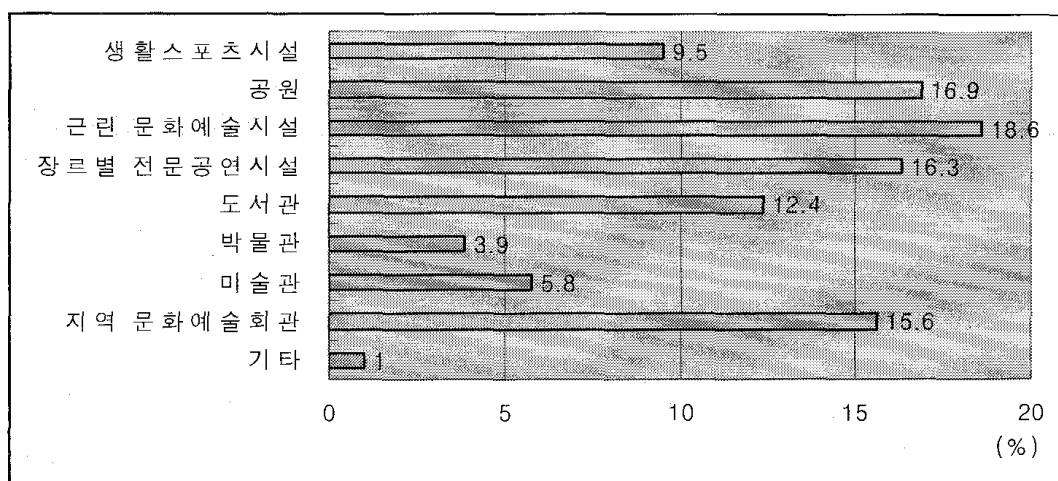
41) 부산시가 계획중이거나 검토중인 문화시설로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부산비엔날레 전용관, 세계적인 미술관, 국립도서관 부산분관, 기타 구·군단위의 문화회관 등이다.

모의 문화시설 확충'(13.0%)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V-6〉 문화시설 확충방안

항목	빈도	(%)
대규모의 문화시설 확충	30	13.0
소규모의 생활근접형 문화시설 확충	152	66.1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도 높이기	44	19.1
기타	4	1.7
합계	230	100.0

한편, 향후 부산에서 '가장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문화시설'의 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1순위에서는 '지역 문화예술회관'(25.1%)과 '장르별 전문공연시설'(20.8%)을, 2순위에서는 '근린 문화예술시설'(21.2%)과 '공원'(19.5%)을, 3순위에서는 '생활스포츠 시설'(20.8%)과 '공원'(19.5%)을 꼽았음. 이들 순위별 응답을 묶어서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근린 문화예술시설'(18.6%), '공원'(16.9%), '장르별 전문공연시설'(16.3%), '지역 문화예술회관'(15.6%) 순으로 문화시설이 확충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3>, <표 V-7> 참조).



〈그림 V-3〉 확충 희망 문화시설(다중응답)

〈표 V-7〉 문화시설확충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지역 문화예술회관	58	25.1	24	10.4	26	11.3	108	15.6
미술관	12	5.2	16	6.9	12	5.2	40	5.8
박물관	6	2.6	13	5.6	8	3.5	27	3.9
도서관	28	12.1	32	13.9	26	11.3	86	12.4
장르별 전문공연시설	48	20.8	41	17.7	24	10.4	113	16.3
근린 문화예술시설	41	17.7	49	21.2	39	16.9	129	18.6
공원	27	11.7	45	19.5	45	19.5	117	16.9
생활스포츠시설	8	3.5	10	4.3	48	20.8	66	9.5
기타	3	1.3	1	0.4	3	1.3	7	1.0
합계	231	100.0	231	100.0	231	100.0	693	100.0

이 같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선진문화도시들의 최근 문화시설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유형을 크게 커뮤니티중심 생활밀착형, 다양한 기능 복합형, 도시마케팅형, 폐공간 재생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 V-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V-8〉 문화시설 동향

구 분	내 용
커뮤니티중심 생활밀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시설보다 이용성, 접근성이 뛰어난 커뮤니티 중심시설 요구 • 개인 및 커뮤니티간의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시민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기능 복합 및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기능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의 투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다양한 기능을 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 • 시설의 패키지화, 편리성, 이용율 증대 • 정부기능의 보완, 타임셰어링, 내부보조 등 상호보완적 효과 • 집약된 시장성과 특화된 경쟁력 확보

(계속)

구 분	내 용
도시마케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활력요소, 매력요소로 작용 • 매력적인 도시경관 연출 효과 • 방문객 유인요소로서 관광자원화
폐공간재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의 가치 재인식 • 삶의 질 제고에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건축문화유산 외 공장, 작업소, 도살장, 창고, 학교, 도시공지 등 활용

자료 : 김효정(2006,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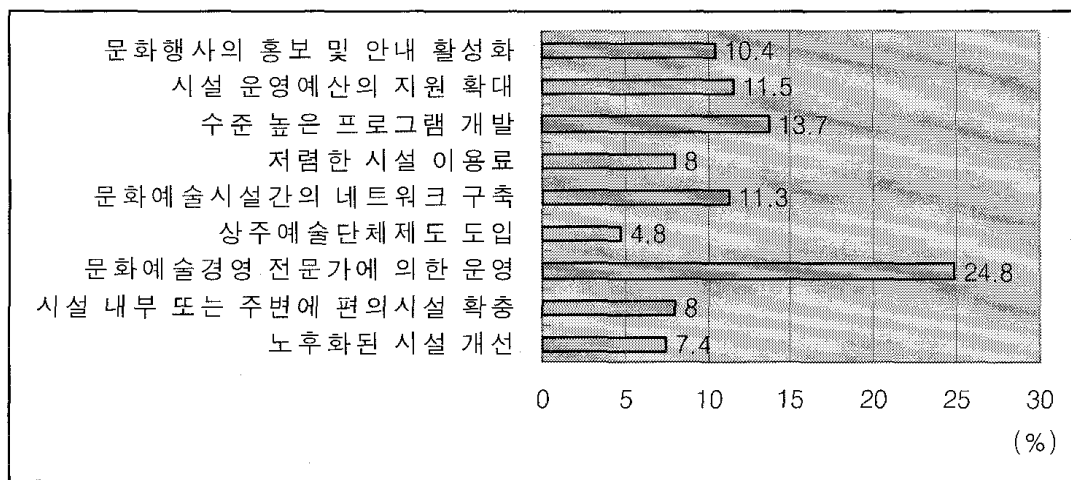
이 같은 조사결과와 김효정의 자료⁴²⁾를 토대로 하여 볼 때, 향후 문화시설의 공급은 전문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현장과 가까운 근린문화예술시설의 확충이라는 이중적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대규모 시설은 전문시설로 건립하면서, 중소규모의 근린문화예술시설 건립으로 정책이 방향지워져야 한다. 한편 근린문화예술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신규시설의 건립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의 활용, 학교시설의 문화예술 공간화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과의 접근성이 높은 문화예술공간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문화시설의 경우 공급 확대도 필요한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시설공급이 이루어진 현재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앞서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부산지역 공공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전문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공무원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욕구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으며, 경영효율성마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지니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형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림 V-4> 및 <표 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지역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순위에서는 35.7%가 ‘문화예술경영 전문가

42) 김효정(2006)

에 의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15.2%), '노후화된 시설개선'(11.7%)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에서는 '시설 운영예산의 지원 확대'(17.4%), '문화행사의 홍보 및 안내 활성화'(15.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경영 전문가에 의한 운영'(24.8%),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13.7%), '시설 운영예산의 지원 확대'(11.5%), '문화예술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축'(1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V-4〉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다중응답)

〈표 V-9〉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빈도	(%)	빈도	(%)	빈도	(%)
노후화된 시설 개선	27	11.7	7	3.0	34	7.4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 편의시설 확충	16	7.0	21	9.1	37	8.0
문화예술경영 전문가에 의한 운영	82	35.7	32	13.9	114	24.8
상주예술단체제도 도입	9	3.9	13	5.7	22	4.8
문화예술시설간의 네트워크 구축	25	10.9	27	11.7	52	11.3
저렴한 시설 이용료	11	4.8	26	11.3	37	8.0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	35	15.2	28	12.2	63	13.7
시설 운영예산의 지원 확대	13	5.7	40	17.4	53	11.5
문화행사의 홍보 및 안내 활성화	12	5.2	36	15.7	48	10.4
합계	230	100.0	230	100.0	460	100.0

민간 참여의 운영형태는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민간법인에의 위탁, 책임경영제의 도입, 별도의 법인 설립운영 등이 대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중요한 다른 한 측면은 공공성의 유지이다. 공공문화예술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을 배제할 경우 시민들의 공공적 이익이 상실되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에 의한 공공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이 경영수지 확대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게 성공적이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에 의해 공공문화예술시설이 운영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의 재정적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경영의 도입 목적은 경영수지의 개선보다는 문화향수권의 제고, 지역의 문화예술수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방향지워져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문화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공유,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활용, 중복에 의한 피해의 회피, 자원의 활용성 제고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칭)문화시설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정기적인 회합과 공동사업 시행을 통해 상호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해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시민과 전문가들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관련연구와 조사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향수권 제고, 문화예술정책 추진기반 측면에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지원정책의 방향 정립,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의 활성화, 비예산지원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향수권 제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종합적인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개최 확대 및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문화예술정책 추진기반 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조직 및 추진체계의 개선, 예산 및 재정기반 개선, 문화시설의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위원회 설치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문예진흥예산의 확대, 지원예산의 운영 합리화, 민간 재원의 적극 개발을 통해 예산 및 재정기반을 개선하며, 소규모 생활근접형 시설 확충, 장르별 전문시설 설치, 문화시설 운영의 민간화를 통한 문화시설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정책, 좁게는 문화예술진흥정책이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욕구와 부합하지 못하는 제한된 점들이 있음이 사실이다. 특히 그간 부산시의 문화정책이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보다는 문화산업영역에 보다 강한 정책의지를 지녀오면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구사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문화예술의 발전이 없이는 문화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은 토대가 약한 상태에서 문화컨텐츠가 개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는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이의 발전이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화예술정책의 환경이 변화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개선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제시한 각종 개선방안의 경우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은 여러 가지로 구축될 수 있겠지만 민간화, 수요자중심, 예술경영적 관점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산시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개선을 추구한다면 그 출발점은 (가칭)부산문화재단 혹은 (가칭)부산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제시한 각종 정책개선방안의 수용, 기존 부산시의 관련정책의 성과 제고,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구축 및 실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조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 구모룡, 2006, “부산광역시의 문화정책 과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지역 문화정책 방향」(정책심포지움 자료집),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지회
- 2) 김효정, 2006, “현대도시들의 새로운 도전, 문화도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3) 라도삼·이호영, 2003,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4) 박신의, 2006, “21세기 예술진흥정책의 비전과 과제”, 「미래를 여는 문화관광의 새 지평」, 경기개발연구원
- 5) 이호영, 2003, 「선진국의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사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6) 임상오(역), 2005, 「창조도시」, 해남
- 7) 임상오, 2006, “창조형 경제시대의 도래와 창조도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8) 임학순, 2006,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혁신을 위한 미래전략 구상”, 「미래를 여는 문화관광의 새 지평」, 경기개발연구원
- 9) 문화관광부, 200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10) 부산광역시, 2005a, 「시정백서」
- 11) 부산광역시, 2005b, 「부산통계연보」
- 12) 부산광역시, 2006a,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 13) 부산광역시, 2006b, 「민선시정 10년의 성과」
- 1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2005공연예술실태조사」
- 15)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부 록⁴³⁾

1) “부산문화2020비전과 전략추진과제” 부산시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금번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은 『부산문화산업2020비전과 전략추진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실태 및 문화수요, 부산문화현황 평가, 문화정책 평가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연구의 기초 자료로만 사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부산시 문화정책의 발전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자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 호 드림

☎ : (051) 860-8701

※ 본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73-20번지 상수도사업본부 8층
부산발전연구원 도시경영사회연구부

실무책임자 : 엄재연

☎ : (051) 860-8706, FAX : (051) 860-8719

homepage : <http://www.bdi.re.kr>

43) 설문조사는 부산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부산문화산업 2020비전과 전략추진과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와 공동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부산의 문화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를 그려 주십시오.

1-1) 부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 부산은 현재 문화도시라고 할 만큼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 부산에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충분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전시 및 공연시설의 시설수준은 훌륭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5) 부산에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풍부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6) 부산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전시회, 공연, 축제 등)의 전반적 내용은 훌륭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2. 부산이 문화도시로 발전하기에 갖추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고르십시오.1순위(), 2순위()

- ①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성 ② 풍부한 문화예술인력
③ 아름다운 자연환경 ④ 풍부한 전통문화자원
⑤ 효율적인 문화정책추진체계 ⑥ 부산시민들의 높은 문화수준
⑦ 우수한 문화시설 ⑧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
⑨ 기타()

3. 부산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고르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문화예술인력 ② 문화예술시설
③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력 ④ 문화예산
⑤ 부산시의 문화발전에 대한 의지 ⑥ 부산시민들의 문화수준
⑦ 문화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 ⑧ 문화예술단체의 미활성화
⑨ 기타()

문화비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 ‘문화도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 ① 문화예술적인 도시경관을 갖춘 도시
 - ② 예술적 품격이 높은 건축물 및 문화시설이 많은 도시
 - ③ 문화예술행사가 풍성한 도시
 - ④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이 발전한 도시
 - 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이 높은 도시
 - ⑥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보전·계승이 잘 된 도시
5. 부산이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어야 할 정책영역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초문화예술의 육성
 - ② 문화시설의 확충
 - ③ 문화산업의 육성
 - ④ 시민의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
 - ⑤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문화향유실태 및 문화수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6.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행사를 몇 회 정도 관람(참여)하셨습니다? 각 해당란에 최근 6개월 동안의 관람(참여) 횟수를 각각 적어주십시오

문화예술행사	최근 6개월 동안 관람(참여) 횟수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클래식 음악회·오페라	
전통예술공연(국악, 마당극 등)	

연극(뮤지컬 포함)	
무용	
영화	
대중가요콘서트·연예	
축제	
문화강좌	
기타()	

7. 다음 항목 중 귀하가 관람(참여)하신 경험이 있는 축제에 모두 ○를 그려주십시오.

- ① 부산바다축제() ② 부산국제영화제() ③ 부산비엔날레()
 ④ 부산락페스티벌() ⑤ 자갈치축제() ⑥ 기장멸치축제()
 ⑦ 해맞이부산축제() ⑧ 기타()

8. 귀하께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행사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예술행사가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② 문화예술행사가 더욱 자주 열려야
 ③ 문화예술행사 관련 정보가 많아져야
 ④ 문화예술행사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⑤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⑥ 이해하기 쉬운 문화예술행사가 많아져야

9. 향후 가장 관람(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행사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우선순위로 3가지만 고르십시오.....1순위(), 2순위(), 3순위()

- ① 문학행사 ② 미술전시회 ③ 클래식음악회/오페라 ④ 전통예술
 ⑤ 연극 ⑥ 무용 ⑦ 영화 ⑧ 대중가요콘서트/연예오락
 ⑨ 축제 ⑩ 기타()

10. 문화예술행사를 관람(참여)할 때 중요한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항목에 대해 각각 그 중요도를 평가해주시요.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를 그려 주십시오.

10-1) 예술행사(작품)의 내용과 수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2) 관람비용의 적정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3) 참가자(작가, 배우, 연주자 등)의 유명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4) 행사장소의 접근 편의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5) 편의시설 구비정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0-6) 행사시설의 쾌적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1. 문화예술행사를 관람(참여)하는데 있어 이를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부족하다.
- ② 비용이 많이 든다.
- ③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 ④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 ⑤ 시설이 불편하다.
- ⑥ 교통이 불편하다.
- ⑦ 함께 관람(참여)할 사람이 없다.
- ⑧ 기타()

12.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12-1 번으로)
- ② 없다(☞ 13 번으로)

12-1.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 ① 미술 ② 영화 ③ 역사문화유산 ④ 가요/연예 ⑤ 전통예술
- ⑥ 문학 ⑦ 연극 ⑧ 만화 ⑨ 무용 ⑩ 서양음악 ⑪ 기타()

13. 현재 귀하께서는 문화관련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 ① 예(☞ 13-1 번으로)
- ② 아니오(☞ 13-2 번으로)

13-1.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동호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문학 ② 미술 ③ 서양음악 ④ 전통예술
- ⑤ 무용 ⑥ 연극 ⑦ 영화 ⑧ 가요·연예
- ⑨ 만화 ⑩ 오락·게임 ⑪ 역사문화유산 ⑫ 기타()

13-2. 문화관련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심이 없어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 ④ 배울 기회나 관련 정보가 없어서
- ⑤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
- ⑥ 비용이 많이 들어서
- ⑦ 기타()

14. 귀하께서는 부산시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를 그려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문화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5. 귀하께서는 부산지역내 문화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V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15-1) 공연시설(연주시설, 공연장 등)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5-2) 전시시설(미술관, 박물관 등)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5-3) 공공 도서관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5-4) 지역 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 등)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5-5) 공원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5-6) 공공 체육시설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6. 귀하께서는 문화시설 확충 방안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규모의 문화시설 확충
- ② 소규모의 생활근접형 문화시설 확충
- ③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도 높이기
- ④ 기타()

17. 귀하께서는 다음 문화시설 중 가장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고르십시오.....1순위(), 2순위()

- ① 지역 문화예술회관 ② 미술관 ③ 박물관 ④ 도서관
- ⑤ 장르별 전문공연시설 ⑥ 근린 문화예술시설 ⑦ 공원 ⑧ 생활스포츠 시설

2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등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학 졸업 ⑥ 4년제대학 졸업 ⑦ 대학원석사 졸업 ⑧ 대학원박사 졸업

2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 노무 종사자
⑪ 군인 ⑫ 무직(학생, 전업주부 포함)

24.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총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④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25. 귀하가 사시는 곳은 어느 지역구(군)입니까?.....(구(군))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부산문화2020비전과 전략추진과제”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금번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은 『부산문화산업 2020비전과 전략추진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지역 문화예술전문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문화현황 평가, 부산문화비전, 문화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연구의 기초 자료로만 사용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부산시 문화정책의 발전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FAX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늦어도 8월 25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 호 드림

☎ : (051) 860-8701

※ 본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73-20번지 상수도사업본부

8층 부산발전연구원 도시경영사회연구부

실무책임자 : 엄재연

☎ : (051) 860-8706, FAX : (051) 860-8719

homepage : <http://www.bdi.re.kr>

부산의 문화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를 그려 주십시오.

1-1) 부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 부산은 문화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 부산에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충분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4)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전시 및 공연시설의 시설수준은 훌륭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5) 부산에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풍부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6) 부산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전시회, 공연, 축제 등)의 전반적 내용은 훌륭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7) 부산에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이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1-8) 부산에는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이 제공되고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2. 부산이 문화도시로 발전하기에 갖추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고르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성 ② 풍부한 문화예술인력
③ 아름다운 자연환경 ④ 풍부한 전통문화자원
⑤ 효율적인 문화정책추진체계 ⑥ 부산시민들의 높은 문화수준
⑦ 우수한 문화시설 ⑧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
⑨ 기타()

3. 부산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고르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문화예술인력 ② 문화예술시설
③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력 ④ 문화예산
⑤ 부산시의 문화발전에 대한 의지 ⑥ 부산시민들의 문화수준
⑦ 문화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 ⑧ 문화예술단체의 미활성화
⑨ 기타()

문화비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 ‘문화도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 ① 문화예술적인 도시경관을 갖춘 도시
- ② 예술적 품격이 높은 문화시설이 많은 도시
- ③ 문화예술 행사가 풍성한 도시
- ④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이 발전한 도시
- 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이 높은 도시
- ⑥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보전·계승이 잘 된 도시

5.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부산시가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어야 할 정책영역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초문화예술의 육성 ② 문화시설의 확충
- ③ 문화산업의 육성 ④ 문화 향수권 신장
- ⑤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6. 부산시가 앞으로 부산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만 고르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국제적 수준의 문화시설 건립 ② 소규모의 생활근접형 문화공간 확충
- ③ 문화예술인(단체) 육성 및 창작활동지원
- ④ 문화경영 및 문화산업 인력 양성 ⑤ 문화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 ⑥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 ⑦ 시민대상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 ⑧ 지역별·계층별 문화적 격차 해소
- ⑨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 제고를 위한 축제와 이벤트의 활성화
- ⑩ 전통문화·문화재 보존 및 계승사업
- ⑪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 ⑫ 문화정보 관련 인프라의 확충

문화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7. 부산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게임산업 ② 영화영상산업 ③ 애니메이션 산업 ④ 방송산업
 ⑤ 만화산업 ⑥ 음악산업 ⑦ 광고산업 ⑧ 캐릭터 산업
 ⑩ 디지털 교육 및 정보산업

8. 부산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② 문화산업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
 ③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혁 및 지원
 ④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⑤ 기초문화예술 육성
 ⑥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⑦ 기타()

9. 문화산업 육성 및 관광상품으로의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축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고르십시오.....1순위(), 2순위()

- ① 부산바다축제 ② 부산국제영화제
 ③ 부산비엔날레 ④ 부산락페스티벌
 ⑤ 자갈치축제 ⑥ 기장멸치축제
 ⑦ 해맞이부산축제 ⑧ 기타()

부산시 문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 사항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V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10-1) 문화시설 정책(문화시설 건립, 운영 등)

매우 잘하고 있다	...	대체로 잘하고 있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	매우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2) 문화산업 정책

매우 잘하고 있다	...	대체로 잘하고 있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	매우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3) 기초문화예술지원 정책(미술, 음악, 문학, 무용, 연극 등)

매우 잘하고 있다	...	대체로 잘하고 있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	매우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4) 축제와 이벤트 정책

매우 잘하고 있다	...	대체로 잘하고 있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	매우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5) 시민문화 향수권 확대 정책(시민 생활문화시설 확충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매우 잘하고 있다	...	대체로 잘하고 있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	매우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3) 공공 도서관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4) 지역 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 등)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5) 공원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2-6) 공공 체육시설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13. 귀하께서는 문화시설 확충 방안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규모의 문화시설 확충
- ② 소규모의 생활근접형 문화시설 확충
- ③ 기존 문화시설의 활용도 높이기
- ④ 기타()

14. 귀하께서는 다음 문화시설 중 가장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만 고르십시오...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지역 문화예술회관 ② 미술관 ③ 박물관 ④ 도서관
- ⑤ 장르별 전문공연시설 ⑥ 근린 문화예술시설 ⑦ 공원 ⑧ 생활스포츠 시설
- ⑨ 기타()

※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를 그려 주십시오.

21. 부산문예진흥기금이 부산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22. 부산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선정과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23. 부산문예진흥기금 심사위원의 구성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24. 부산문예진흥기금 지원금 배분기준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25. 부산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26. 부산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 또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십시오.

()

문화예술진흥정책 추진체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7. 현재 부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부산시 문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28.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의 의사결정에서 민간 문화예술전문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
- ②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 ⑤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9.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행정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 ② 민간 부문의 책임성 부족
- ③ 민간 부문의 참여기반 부족
- ④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체계 미흡
- ⑤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족
- ⑥ 기타()

응답자 분류를 위한 일반사항입니다.

30.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 ② 여자

31.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2. 귀하의 직업은?.....()

- ① 문화예술 창작 활동가
 ② 문화행정 및 문화시설 관련 공무원
 ③ 교육 및 연구기관 종사자
 ④ 문화예술관련 산업 종사자
 ⑤ 기타()

33.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문화예술 장르는?.....()

- ① 문학 ② 미술 ③ 음악 ④ 무용 ⑤ 연극 ⑥ 영화
 ⑦ 연예 ⑧ 국악 ⑨ 사진 ⑩ 건축 ⑪ 어문 및 출판 ⑫ 기타()

* 작성한 설문지를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거나, FAX.(051) 860-8719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간행물 안내 ●

【연구보고서】

1. 낙동강하구권 정비특별법(안)	1993. 2
2. 부산시 교통문제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1993. 4
3. 부산시 교통소통 위한 이면도로 활용방안	1993. 5
4.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부산유치 타당성 분석	1993. 9
5. 부산지역 자동차산업 유치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1993. 10
6. 경부고속철도 신부산역사 선정과 부산의 미래	1993. 10
7. 부산시의 대규모시설 이전적지에 대한 진단 및 활용방안	1994. 2
8. 낙동강 상수원수 수질 개선방안	1994. 2
9. 부산시 교통체증지역 교통소통 완화방안	1994. 3
10. 우리 부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4. 4
11. 부산시 행정조직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1994. 4
12. 부산시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1994. 6
13. 부산권 기술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1994. 7
14.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1994. 8
15. 부산지역 경기동향지수(DI) 개발 및 분석	1994. 8
16. 대도시 지방자치정부 구조의 적정모델에 관한 연구 - 부산직할시를 중심으로 -	1994. 8
17. 부산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실태조사 연구	1994. 9
18. 부산시 자치구별 경제사회 통계지표의 비교	1994. 9
19. 부산시 이전적지의 활용과 재원조달 방안	1994. 10
20. 신항만건설을 통한 부산항 개발전략	1994. 10
21. 서부산권개발특별법(안) 제안	1994. 10
22. 수자원부족과 대응방안	1994. 10
23. 부산시의 폐기물처리 대책과 NIMBY 극복방안	1994. 11

24. 부산지역 경기종합지수(CI) 개발 및 경기분석	1995. 1
25.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1995. 2
26.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업종별 현장애로요인과 개선방안	1995. 3
27. 부산의 세계화 · 세계도시 —가능성과 전략사업—	1995. 5
28. 부산의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의 현황 및 운용전략	1996. 1
29. 부산권 주거수준에 관한 조사연구	1996. 2
30. 지방시대 신 신용보증 시스템 구축방향	1996. 6
31. 2002 아시안게임·월드컵 동시개최와 부산경제 발전방향	1996. 7
32. 실버서비스 산업의 진전과 진흥방안	1996. 8
33. 부산발전 그랜드디자인	1996. 8
34. 부산지역 중소기업 금융애로 개선방안	1996.10
35. 한국 · 일본의 지방재정 비교연구 —부산과 오사카의 도시재정을 중심으로—	1996.10
36. 부산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GIS-T 도입방안	1996.12
37. 부산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효율적 추진방안	1997. 1
38. 환동해권의 역동성과 지역간 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개	1997. 2
39. 부산권 택지분포특성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1997. 4
40. 개발계획과정상의 주민참여 확대방안	1997. 6
41. 한중일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 비교	1997. 8
42. 21세기를 여는 부산의 미래산업	1997.12
43. 멀티미디어시대의 부산 영상산업 육성방안	1998. 2
44.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998. 3
45. 부산광역시 해양 워터프론트의 개발 및 보전	1998. 3
46. 부산 · 경남권 공동경마장 입지타당성 평가	1998.10
47. 부산시 생활환경의 쾌적성 평가에 관한 연구	1998.12
48. 부산 도시하천 경관관리방안	1999. 4
49. 부산시 이면도로 실태조사 연구	1999. 5

50. 부산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1999.11
51. 환경소음 개선효과의 평가에 관한 연구	1999.12
52. 이용특성에 따른 지구도로 분류와 주민평가에 관한 연구	1999.12
53. 부산지역 경기동향지수를 통한 지역경기변동의 특징분석	1999.12
54. 도시기본계획 인구추계에 관한 연구	1999.12
— 부산·경남권을 중심으로 —	
55. 해운대 신시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1)	1999.12
56. 부산시 상업기능의 공간적 분포와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1999.12
57. 부산시 항만·연안 크루즈 항로의 평가	2000. 3
58. 부산인접도시 택지개발지 가구이동에 관한 연구	2000.12
59. 인공위성 영상을 통한 부산지역 토지피복과 녹지의 경년변화에 관한 연구	2000.12
60. 낙동강수계 총량규제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1)	2000.12
— 영양염류의 영향이 고려된 삭감목표량 산정을 중심으로 —	
61. 해운대 신시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2)	2001. 4
62. 서비스산업과 도시성장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2001.10
63. 부산항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에 관한 연구	2001.11
64. 개발제한구역의 생태적 관리에 관한 연구	2001.11
65. 교통규제정책 시행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효과 분석	2002. 1
66. 부산시 주거환경 편익시설 이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2002. 1
67. 부산지역 삶의 질의 만족도 수준에 관한 연구	2002.12
—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	
68. WTO 뉴라운드 출범과 부산지역경제 대응방안	2002.12
— 공산품 협상을 중심으로 —	
69. 부산시 전략산업육성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2002.12
— 구조고도화산업을 중심으로 —	
70. 의회주도형 지방분권운동의 전개 방안	2002.12
—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71. 부산지역 생활폐기물 발생저감을 위한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방안	2002.12
72.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One-Stop Solution 행정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2002.12
73. 부산시의 다핵공간구조 변화분석과 정책과제	2002.12
74. 부산대도시권 통근·통학 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	2002.12
75. 부산항 컨테이너화물 철도수송의 활성화 방안 연구	2002.12
76. 공동주택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12
77. 광역경제권 중심도시의 산업특성에 관한 연구	2002.12
78. 낙동강 하구 연안 수질 개선을 위한 비용분담 적정 모델 설정	2002.12
79. 부산의 도시하천 환경정비 방안 — 자연형 하천환경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	2002.12
80. 부산시 도시림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2.12
81. 교통특성에 따른 부산권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별 정비방안	2002.12
82. 부산광역시도시권의 관리기능 제고방안	2002.12
83. 부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환경 개선방안	2003.11
84. 부산지역 노인여가복지의 실태와 정책과제 — 노인여가시설의 활동을 중심으로 —	2003.11
85. 낙동강 하류지역 수질특성 연구를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 방안	2003.11
86. 부산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03.11
87. 부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여건과 사업추진방안 연구	2003.11
88. 교통카드 DB를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방안 연구	2003.11
89. 부산의 근대역사건조물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3.11
90.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모델 구축	2003.11
91. 세계도시 부산을 향한 자매도시와의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 도시계획부문을 중심으로 —	2003.11
92. 부산시 환경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2003.11
93. 부산연안 수질환경 실태 분석 및 해양환경 관리방안 연구	2003.11

94. 도시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한 바이오툼 구축방안 — 바이오툼 지도화를 중심으로 —	2003.11
95. 주차안내정보시스템(PGI) 구축방안 연구	2003.11
96. 부산광역시 첨단교통정보제공시스템(ATIS) 평가 및 효율적인 구축방안	2003.11
97. 부산지하철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평가 및 적용에 관한 연구	2003.11
98. 교통영향평가의 원단위조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방안 연구	2003.11
99. 하수처리수의 해중방류를 통한 부산 연안의 수질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2003.11
100.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세외수입확충방안	2003.11
101. 부산광역시 협치행정 모델개발과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2003.11
102. 부산의 수상공간 시민여가 및 관광기능 창출에 관한 연구	2003.11
103. 부산광역시 산업구조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제조업 중심으로 —	2003.11
104. 부산지역 산학관 협력 활성화방안	2003.11
105. 부산지역 시티투어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	2003.11
106. 부산시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e-Logistics의 개선 방안	2003.11
107. 하수슬러지 적정처리 및 재활용 방안	2003.11
108.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말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2004.11
109. 부산지역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실태분석 및 적정관리방안	2004.11
110. 부산광역시 주거특성과 주거수준향상 방안 연구	2004.11
111. 부산지역 역사문화환경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중심으로 —	2004.11
112. 부산광역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방안 연구	2004.11
113. 부산지역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04.11
114. 부산 뉴타운 개발사업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2004.12

115. 부산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2004.12
116. 부산광역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평가 및 효율적 추진방안	2004.12
117. 부산의 해양관광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4.12
118. 부산지역 서비스업 고도화 방안	2004.12
119. 부산연안 친수공간의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	2004.12
120.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용을 제고 방안	2004.12
121.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개선방안 연구	2004.12
122. 분권참여시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12
123. 부산지역 가격파급효과 분석모델 구축	2004.12
124. 부산광역시 실업구조 분석과 실업대책 연구	2004.12
125. 공공사업의 사후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	2004.12
126. 부산시 녹지총량관리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5. 1
127. 낙동강 하구역의 생태·경제학적 가치평가와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5. 1
128.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전문업체 육성 방안	2005. 1
129. 부산광역시의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005. 1
130. 중국인 관광객 부산유치 증대 방안	2005. 1
131. 부산의 세계도시 브랜드마케팅 개발전략	2005. 5
132. 부산항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5. 6
133.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한 부산의 도시관광산업 활성화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005. 7
134. 부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계획적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2006. 1
135. 부산광역시 광역상수도 조기 확보 방안	2006. 1
136. 자원봉사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2006. 1

137. 부산연안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2006. 1
138. 부산시 특성화 벨트 구축을 위한 공간권역에 관한 연구	2006. 1
139. 부산지역 수출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2006. 1
- 부산시 수출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140. 부산의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유치와 지정가능성 연구	2006. 1
141.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 연구	2006. 1
142. 고령화 사회에 따른 부산시 노인주거정책 추진방안 연구	2006. 1
143. 부산지역 환경산업 위상정립과 발전방안	2006. 1
144. 항만경쟁력 변화분석에 따른 부산항의 대응방안	2006. 1
145.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	2006. 1
146.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효율성 비교분석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	2006. 1
147. 부산지역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방안	2006. 1
148. 부산시 연안육역 관리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	2006. 1
149. 교통행정수요에 대응한 교통기구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2006. 2
150. 고객관계관리 중심의 민원제도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2
151. 부산권(김해, 양산) 산업실태 및 분업구조 분석	2006. 2
152. 동남권 실업구조 분석과 실업대책 연구	2006. 2
- 청년층 실업을 중심으로 -	
153.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법 개선	2006. 2
154. 부산광역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구축방안 연구	2006. 2
155. 부산지역 생활계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장기수요예측과 대응방안	2006. 2
156. 부산지역 관광통계 작성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2
157. 경쟁도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 오사카 -	2006. 2
158.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부산시 정책방향	2006. 2

159. 부산지역 도시하천의 실태분석과 환경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2006. 3
160. 부산시 생태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2006. 4
161. 부산의 해수욕장 관광상품화에 관한 연구	2006. 4
162. 부산지역 용도별 용적제 운용에 관한 연구	2006.12
163.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	2006.12
164.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2006.12
165. 부산시 교통약자의 통행권 확보 방안	2006.12
-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	
166. 부산지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2006.12
- 수영강유역을 중심으로 -	
167. 부산광역시 자연환경자원의 보전 및 활용방안	2006.12
- 사례지(부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	
168. U-Busan 구축을 통한 U-IT 클러스터 조성 방안	2006.12
169. 부산지역 과학기술인력 수급분석	2006.12
170. 부산광역시 가로녹지 증진방안	2006.12
171.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6.12

• 연구원 회원가입 및 자료구입 문의 : 부산발전연구원 회원담당. (051)860-8602

《담당 연구진》

연구책임	선임연구위원	임 호 (hdmlim@bdi.re.kr)
공동연구	연구위원	강성권 (skkang@bdi.re.kr)
	전문위원	주 덕 (lion@bdi.re.kr)

171

연구 2006-10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Scheme on Culture and Art Promotion Policy in Busan

발행인 김 영 삼

발 행 2006년 12월

발행처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우)614-0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73-20 상수도사업본부 8, 9F

전화 (051)860-8646, FAX (051)860-8669

Homepage : <http://www.bdi.re.kr>

인쇄처 세종문화사

전화 (051)463-5898, FAX (051)248-4880

E-mail : chol.com

ISBN 978-89-5896-125-3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